

중앙자활자금 효과성 분석 연구

최상미·조자영·김경휘·황은하·성경하·임동욱·황수연·박소인

【연구책임자】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조자영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황은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개발부 주임연구원

성경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개발부 주임연구원

임동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 선임

황수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 주임

【연구보조원】

박소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CONTENTS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3. 연구의 방법	7
II. 중앙자활자금 사업 추진 현황	11
1. 중앙자활자금 조성 현황	13
2. 중앙자활자금 사업 개괄	17
1) 창업지원	17
2) 활성화 지원	18
3) 지역균형 발전 자금 지원	31
3. 유사 발전 펀드 추진 현황 및 특성	32
1) 녹색자금	33
2) 국민건강증진기금	36
III. 중앙자활자금 사업 효과성 분석	39
1. 창업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41
2.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52
3. 시설환경 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67
4. 사업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80
IV. 중앙자활자금 사업 효과성 평가	117
1. 중앙자활자금 효과성 종합 평가	119

2. 사업별 효과성과 제언	120
1) 창업지원 사업	121
2) 역량강화지원 사업	121
3) 시설환경지원 사업	125
4) 사업지원 사업	127
3. 현행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128
1)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 조사 개요	128
2) 현행 중앙자활자금의 추진	129
3) 중앙자활자금 지원 절차 관련, 공모제에 관한 평가	133
4) 향후 중앙자활자금의 역할 및 세부 사업에 관한 개선 사항	138
5) 중앙자활자금의 운용에 관한 기타 의견	143
4. 종합 결론 및 제언	145

참고문헌	149
-------------------	------------

부록	151
-----------------	------------

CONTENTS

표목차

〈표 I-1〉 중앙자활자금의 사용 범위 연혁 4

〈표 I-2〉 중앙자활자금 사업 지원목적별, 조직단위별, 기간 요소 분석에 따른 성과 분석 8

〈표 I-3〉 지원 목적별 사업분류에 따른 성과 분석 지표 9

〈표 II-1〉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 연도별 결산 16

〈표 II-2〉 활성화 부문 연도별 세부 사업 (‘21~’23) 30

〈표 II-3〉 녹색자금 주요 사업개요 35

〈표 II-4〉 국민건강증진기금 주요 사업개요 38

〈표 III-1〉 창업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41

〈표 III-2〉 창업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성과 42

〈표 III-3〉 2022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운영자금) 43

〈표 III-4〉 2022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임대보증금) 43

〈표 III-5〉 2023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운영자금) 44

〈표 III-6〉 2023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임대보증금) 45

〈표 III-7〉 자활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별 경제적 성과 비교 (1) 매출액 47

〈표 III-8〉 자활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별 경제적 성과 비교 (2) 매출총이익 49

〈표 III-9〉 자활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별 경제적 성과 비교 (3) 영업이익 51

〈표 III-10〉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53

〈표 III-11〉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 성과 55

〈표 III-12〉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분석 57

〈표 III-13〉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의 효과성 분석 58

〈표 III-14〉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59

〈표 III-15〉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 시행별 자활기업 대표자 인식의 변화 61

〈표 III-16〉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62

〈표 III-17〉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63

〈표 III-18〉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64
〈표 III-19〉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사회적 성과 비교	65
〈표 III-20〉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 전후 법인격 자활기업 변화	66
〈표 III-21〉 시설환경 지원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68
〈표 III-22〉 시설환경 지원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성과	69
〈표 III-23〉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분석	70
〈표 III-24〉 자활기업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72
〈표 III-25〉 자활기업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73
〈표 III-26〉 자활기업의 센터시설 개선 사업 효과성 분석	74
〈표 III-27〉 자활기업의 센터시설 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75
〈표 III-28〉 자활기업의 센터시설 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76
〈표 III-29〉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 분석	77
〈표 III-30〉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78
〈표 III-31〉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79
〈표 III-32〉 사업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81
〈표 III-33〉 사업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성과	83
〈표 III-34〉 사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85
〈표 III-35〉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86
〈표 III-36〉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87
〈표 III-37〉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87
〈표 III-38〉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88
〈표 III-39〉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89
〈표 III-40〉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90
〈표 III-41〉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91

〈표 III-42〉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 92

〈표 III-43〉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93

〈표 III-44〉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94

〈표 III-45〉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95

〈표 III-46〉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96

〈표 III-47〉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97

〈표 III-48〉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98

〈표 III-49〉 지역특화 지원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99

〈표 III-50〉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100

〈표 III-51〉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101

〈표 III-52〉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 102

〈표 III-53〉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 103

〈표 III-54〉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104

〈표 III-55〉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105

〈표 III-56〉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105

〈표 III-57〉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106

〈표 III-58〉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 106

〈표 III-59〉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107

〈표 III-60〉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108

〈표 III-61〉 경영관리지원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109

〈표 III-62〉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 110

〈표 III-63〉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고용성과 비교 111

〈표 III-64〉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 비교 112

〈표 III-65〉 사업지원 전체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113

〈표 Ⅲ-66〉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114
〈표 Ⅲ-67〉 사업지원 수혜 자활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종합	115
〈표 Ⅳ-1〉 중앙자활자금 효과성 평가 요약	120
〈표 Ⅳ-2〉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 조사 개요	128
〈표 Ⅳ-3〉 중앙자활자금 집행 구조의 타당성	129
〈표 Ⅳ-4〉 세부 사업 부문 내 예산 배분의 적절성	131
〈표 Ⅳ-5〉 세부 사업 중 신설 가능성 및 보완 사항 제안	132
〈표 Ⅳ-6〉 공모제 진행의 한계 및 개선 사항	134
〈표 Ⅳ-7〉 비공모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135
〈표 Ⅳ-8〉 공모 이관형 사업의 적절성 평가	137
〈표 Ⅳ-9〉 중앙자활자금 현행 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39
〈표 Ⅳ-10〉 추진 사업 특성별 중장기 지원사업의 필요성 평가 및 제안	140
〈표 Ⅳ-11〉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필요성 및 관련 지원 기준 제안	141
〈표 Ⅳ-12〉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성과 평가 항목	143
〈표 Ⅳ-13〉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2차 성과 평가 기준의 필요성	143
〈표 Ⅳ-14〉 중앙자활자금 운용 관련 기타 의견	144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중앙자활자금의 조성 및 지출 현황(2013-2023) 15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활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해당 자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아래 각종 자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대출액은 중앙자활자금과 지역자활자금으로 정산되는데, 중앙자활자금은 참여자 자산 형성 지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 지원에 활용되며, 지역자활자금은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대출액의 30%를 중앙자활자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해체하여 대출 및 적립금 반납 처리하는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자활자금 40%, 지방은 70%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기금의 적립 범위 및 관리·운영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져 있어 자활기금을 통한 각종 자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이에 2013년부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대출액 중 일부를 ‘중앙자산키움펀드’라고 지칭한 특정 계좌에 적립하여 자활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 관리·운영을 개발원에서 맡아 오고 있다(이산해 외, 2022). 기부금,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등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하여 자산형성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시장, 사회적경제 취·창업을 조건으로 자활사업단 대출금 및 수익금 매칭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개발원에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

회가 설치되었고, 지자체 요청 시 기금 지출·용자 심사를 지원하는 등 기금활용도를 제고하고, 자활기업 규모화 및 전국화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

이러한 중앙자활자금이 점차 축적됨에 따라 그 운용 목적에 따른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자활자금은 2013년 이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이 다양화·세분화 되었는데, 특히 2019년 이후 2021년~2023년까지 중앙자활자금의 사업이 확대되었고, 해당 사업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자활자금 활용에 대해 기능과 지출액만 확인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세부 사업 내용의 목표, 전략, 활동 등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지원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충분히 평가된 바가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중앙자활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자활자금 기반 자활사업 및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중앙자활자금 방향과 효율적 활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I-1〉 중앙자활자금의 사용 범위 연혁

연도	사용 범위
2013~2017년	내일키움매칭금(매출액의 사용비율 20%)
2017~2018년	내일키움매칭금 + 우수자활기업지원 + 전국 자활기업 지원
2019년 1~3분기	내일키움매칭금 + 우수자활기업지원 + 전국 자활기업 지원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2019년 4분기	적립방식 변경, 현재의 사용 용도로 확대,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여 일부 지침 변경
2020년	자신형성지원 + 우수자활기업지원+ 전국 자활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 자활기업 창업자금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2021~2023년	자신형성지원 + 우수자활기업지원+ 전국자활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 자활기업 창업자금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자료: '이산해·유일한·강석훈(2022).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법성 검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를 저자가 요약, 재구성한 것임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자면, 기존에 전개된 자활기금 및 기금운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이 각자 확보한 자료인 조성 현황, 집행 실적,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자활기금 운용 현안과 문제점, 방안에 대해 학술적 의미가 있는 결과들을 도출한 바 있다.

먼저 김재진과 동료들(2011)은 각 지자체 자활사업 실무진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중앙기금, 지방기금 및 자활 유사 기금에 관해, 조례를 조사하였고, 지자체와 시군구 단위의 기금 적립과 사용 현황, 자활기금 운용 시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화숙(2019)은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다룬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 고찰과 비교분석을 통해 근로장려금제도 정책 내용과 제도 변화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확대 과정상 제도 간 조정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다음으로 최병근(2020)은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과 연도별 자활기금 집행 실적을 토대로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광역, 기초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5억 원 이상의 자활기금 조성을 충족하지 않은 지자체가 약 10% 이상인 조성 현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집행 실적의 경우 기금 보유액은 초기 대비 7.4배 규모로 증가하였고 집행액 역시 매년 증가해 조성액 대비 97%에 달하는 금액이 집행되었지만, 초과 집행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조상미와 동료들(2021)은 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9개년('12~'20) 문헌과 서울시 사회적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약 840개소를 대상으로, - 정부지원사업 참여 여부, 성과(경제적/사회적), 재정지원사업 종류(일자리창출/전문인력지원/사업개발비지원/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사업 참여 사업 수, “정부/재정” 지원사업 총액,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및 조직 인증/운영기간, 조직유형, 개인 차원-임파워먼트 & 사회적기업가 정신(의식 측면), 조직 차원-업무성과(인식 측면) & 거버넌스 역량 & 경영지원 시스템, 생태계 차원-지역역량강화 & 사회적자본 &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등 개인 차원의 인구사회학 특성부터 조직 차원의 특성 등을 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보다 다차원적으로 정부 지원형 사업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앙자활기금과 같이 ‘지원형 사업’의 효과성(측정)에 어떠한 변인이 존재하는지 살핍으로써 전보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최조순과 최성은(2023)은 경기도 자활기금 평가·운용 제도, 선행연구의 기금실태 진단 항목을 토대로 1) 자활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 간 중복 유사성은 우수한 편이며, 2) 재원의 안정성·지속성, 기금 개별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은 설치 목적이나 중복 유사성 진단 항목 대비 저조해, 보완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김용수와 동료들의 연구(2023)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10개년('12~ '21) 문헌을 토대로, 1) 기금준치평가의 자의성 문제와 기금 목적에 맞는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자체-행안부가 이원적으로 기금준치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 집행 차원에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차별적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고, 3) 운용과 관리 차원의 성과평가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년도 계획 심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였고, 4) 지속성 있는 성과분석 채점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 내 운용 예측 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5) 기금 담당자의 인사 체계를 전문직위제로 변경해 기금 전문성 제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중앙자활자금 및 복지 관련 기금의 운용, 효과성 등에 관한 논의는 이어져 왔으나 그 궤적을 쫓아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제약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공통되게 보인다. 물론 최조순과 최성은(2023)은 '자활자금' 및 그것의 운용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지만, 이는 경기 지역에 한정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모집되는 중앙자활자금을 관한 효과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더욱이 상술한 바처럼, 중앙자활자금이 수년간 누적되며 규모 차원에서 확장성을 보이며 자금 운용의 효과성에 대한 중간 점검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지점을 반영하여, 각 자활사업(단)을 통해 조성되는 규모 있는 자금의 운용에 대해 다룬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의 과정부터 산출, 결과를 토대로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산출된 효과성을 토대로 근거 기반의 사업 개선 사항을 도출해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고도화된 함의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자금의 법적 개념과 범위를 살피고, 자금 운용의 변화 궤적을 검토하여 현행 중앙자활자금의 조성 현황과 사용 범위에 대해 다룬

다. 이를 토대로, 중앙자활자금 운용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업 재분류 및 지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통해 운영되는 세부 사업의 계획 및 전년도 결과를 다룬 연례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해 사업지원, 시설 환경지원, 인력 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재분류를 진행해 보고,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비 구조 및 재정 기준, 성과분석을 통해 자금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자활자금과 같이 각 지부에서 모집되는 기금인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과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에 관한 조성 계획 및 운용 특성을 각기 분석하여 자활사업 운용에 활용되는 중앙자활자금의 특성과 합의 도출도 함께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관련 실태조사 자료와, 중앙자산키움펀드 연례 운용계획서를 병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금 지원을 통해 집행되는 세부 사업의 효과성 및 변인을 분석한다. 특히 세부 사업의 실제 집행액의 경우, 5개년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효과를 엄밀히 측정해 볼 것이다.

나아가 중앙자활자금의 세부 사업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유관기관 실무진,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현행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의 효과성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고찰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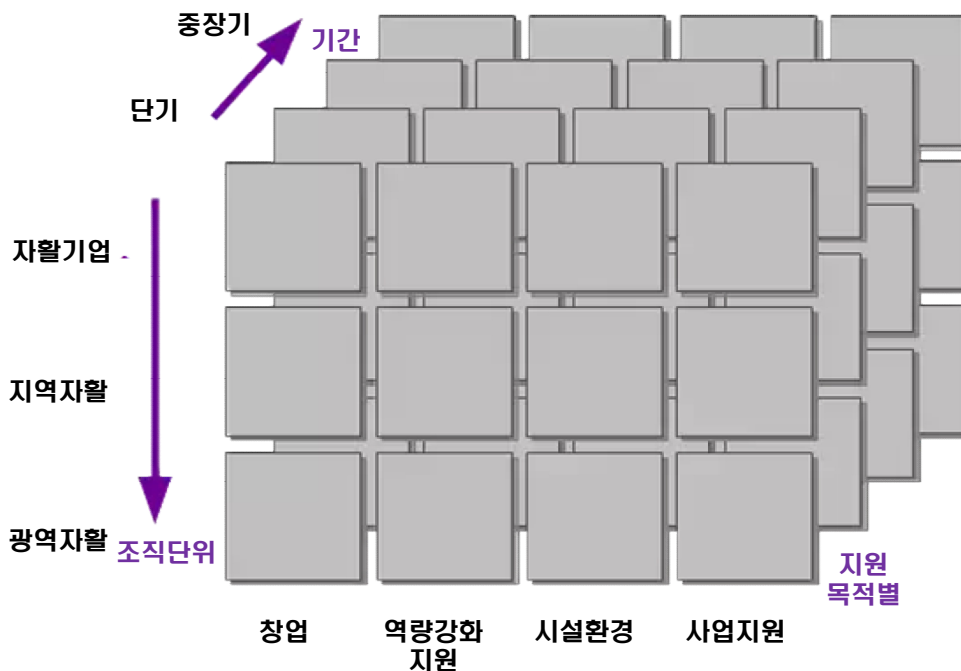
끝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중앙자활자금 세부 사업별 효과성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해석해 보고, 현행 사업 집행 방식의 난점을 짚어 전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중앙자활자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상술한 것처럼 중앙자활자금에 관한 기존 연구가 제한된 측면을 보여, 중앙자활자금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재원으로 평가되는 타 기금(자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계획서를 토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중앙자산키움펀드(이하 중앙자활자금)의 현황을 분석한다.

더불어 양적 방법론의 차원에서 2차 행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중양자산키움펀드 운용계획서 내 집행 내역을 데이터화하여, 이를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응답 값과 병합한 자료를 분석한다. 중양자활자금 지원 사업의 목적별, 조직 단위별, 기간 요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 틀에 따라 면밀한 성과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양적 분석이 어려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을 진행한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중양자활자금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실무진 등)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표 I-2〉 중양자활자금 사업 지원목적별, 조직단위별, 기간 요소 분석에 따른 성과분석



〈표 I-3〉 지원 목적별 사업분류에 따른 성과 분석 지표

(단위 : 백만 원)

사업분류		사업명	성과분석 지표	
			공동지표	개별지표
창업지원		자활기업 창업 지원사업	고용율,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자활기업 창업 후 만족도 - 기업가 정신 - 자활기업 창업 수
역량 강화 지원	인력지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전환율 - 공모 사업 지원 경험 수 - 자활기업 조직문화(대표자, 종사자) - 자활기업 기업가정신(대표자,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복지·자활 도우미 역량향상 교육사업		
		온라인 교육(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확대		
		*마이크로러닝콘텐츠개발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		
시설환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사업장 환경개선 자활센터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유지율 -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 - 지원 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율 - 지원 사업단/센터의 매출액 - 지원 사업단/센터의 취창업율
사업 지원	연구개발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유지율 - 주관적 경제성과 변화 정도
	판로지원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활성화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 지원사업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경영지원	우수자활기업 선정		
경영관리지원사업				

주. 데이터 가용 여부에 따라 사업별 성과 분석 시 지표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음

II

중앙자활자금 사업 추진 현황

1. 중앙자활자금 조성 현황
2. 중앙자활자금 사업 개괄
 - 1) 창업지원
 - 2) 활성화 지원
 - 3) 지역균형 발전 자금 지원
3. 유사 발전 기금 운용 현황
 - 1) 녹색자금
 - 2) 국민건강증진기금

II

중앙자활자금 사업 추진 현황 《

1. 중앙자활자금 조성 현황

중앙자산키움펀드(이하 중앙펀드)의 연도별(2013~2023년)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누적 수입(총 조성액)은 총 3,337억 원으로, 총 조성액 대비 31.3%인 1,043억 원이 집행되어 2023년 기준 보유 잔액은 약 2,204억 원이다.

1) 수입 부문 (조성액, 이자 및 상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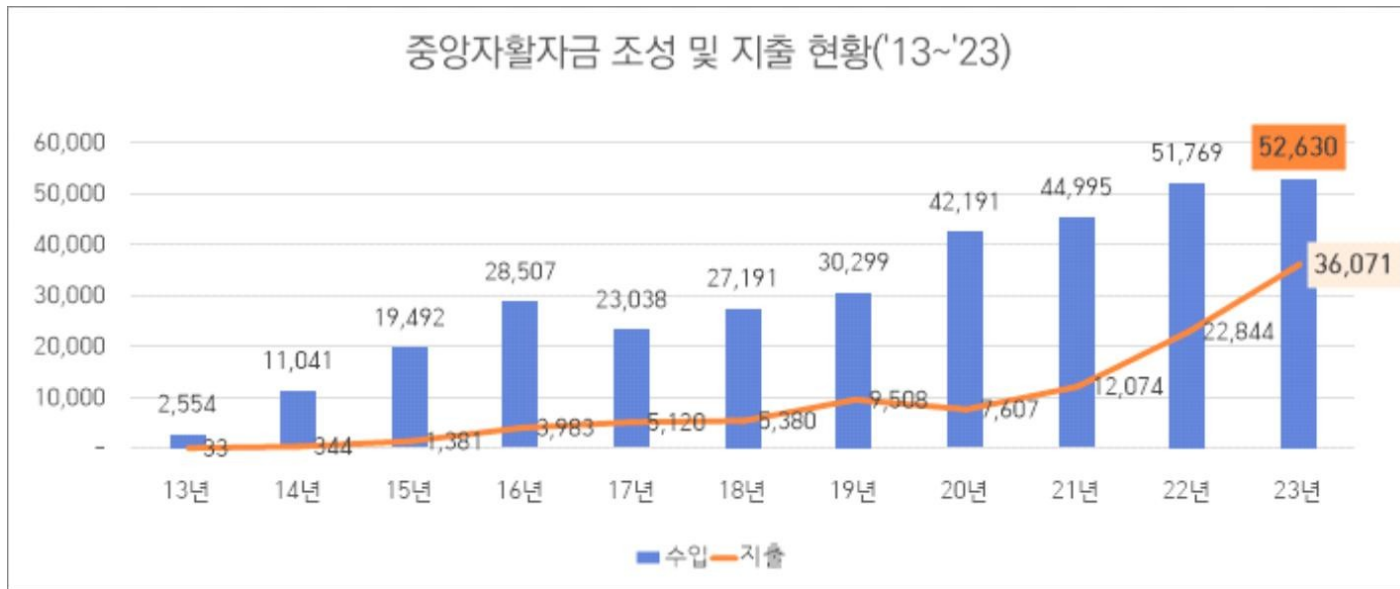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조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수입의 경우, 중앙펀드가 처음으로 조성된 2013년 약 25억 원의 수입액을 가지며, 다음 해인 2014년 약 4배에 달하는 조성 금액을 달성하게 된다. 기금 수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인 약 200억 원, 16년에는 1.4배 정도 증가해 약 28억 원을 달성한다. 과거 대비 소폭이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도 꾸준한 증가세로, 2020년에 들어 약 400억 원이 넘는 기금 수입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후 계속해서 수입이 늘어 2023년 기준 약 470억 원에 달한다. 조성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그에 따른 이자 역시 상당해 이자로부터 얻는 수입 역시 상당하다. 가령, 2018년 약 10억 원, 2023년에는 약 43억 원의 이자가 형성되었다. 창업지원과 사업장 환경개선 임대보증금 상환 등을 통해 최근 2년에 걸쳐 총 약 37억 원의 상환 수입금을 얻기도 하였다.

2) 지출 부문 (장려금, 사업비 및 운영비)

이어서 장려금,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성된 지출 부문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지출은 꾸준한 증가세인 수입과 달리, 부분 감소세를 보이는 시기가 몇몇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장려금의 경우 조성 초기 비교적 적은 금액이 지출되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상술된 것처럼, 증감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2016년부터 약 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사용된 이후, 다음 해인 2017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지출이 커진다. 이듬해인 2019년도 마찬가지로, 30억 원 이상이 지출되다가 거의 절반 금액으로 지출 금액이 줄다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갖는다. 사업비의 경우, 2015년부터 본격화되어, 18년도와 20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해 지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심사비, 모니터링비, 회의비, 각종 수용비와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는 점차 지출이 커서 23년도 기준 약 15억 원이 사용되었다.

〈그림 I-1〉 중앙자활자금의 조성 및 지출 현황(2013-2023)

(단위 : 백만 원)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인 2023년 중장자산키움펀드 사업결산 보고를 저자가 도식화한 것임

〈표 II- 1〉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 연도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수입	조성액	2,547	10,992	19,363	28,031	22,672	26,107	28,907	40,250	43,764	48,087	47,044	317,764
	이자	7	49	129	476	366	1,084	1,392	1,941	1,231	1,212	4,328	12,215
	상환액*	-	-	-	-	-	-	-	-	-	2,470	1,258	3,728
수입 합계	2,554	11,041	19,492	28,507	23,038	27,191	30,299	42,191	44,995	51,769	52,630	333,707	
지출	장려금	33	344	815	1,982	1,635	2,250	3,237	1,658	2,106	3,563	4,601	22,224
	사업비	-	-	566	1,934	3,371	2,955	6,087	5,761	9,774	18,380	29,952	78,780
	운영비**	-	-	-	67	114	175	184	188	194	901	1,518	3,341
지출 합계	33	344	1,381	3,983	5,120	5,380	9,508	7,607	12,074	22,844	36,071	104,345	
보유잔액	2,521	10,697	18,111	24,524	17,918	21,811	20,791	34,584	32,921	28,925	16,559	229,362	

*창업지원 및 사업장 환경개선 임대보증금 상환 등

** 심사비, 모니터링비, 회의비,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인 2023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결산 보고를 저자가 도식화한 것임

2. 중앙자활자금 사업 개괄

중앙자활기금 사업은 대표적으로 창업지원, 활성화 지원, 지역균형 발전 자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운용 내용과 실적, 주된 성과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개괄적으로는 아래 제시된 <표 II-2>를 통해 해마다 추진된 세부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1)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초기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자활사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년 10월 이후 매출 정산 방식이 바뀌며, 각 사업단의 창업자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던 운용 방식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하여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변동 사항을 적용해 해마다 그 명칭과 기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추진 배경과 목적은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2021년에는 “창업자금”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창업한 자활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의 경우 무상으로 최대 6천만 원, 임대보증금의 경우 용자-원금 분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조기창업 인센티브”를 신설해 적극적인 창업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할당된 최종 예산은 50억 원 정도로, 이 중 50% 이상 집행되어 총 약 2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 추진된 자활기업 창업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자활기업 창업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무이자 용자로 지원하며 분기 균등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사업단 운영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조기 창업 자활기업의 경우, 운영자금의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로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과 기적립 창업자금 적립 기간 감소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좀 더 원활한 창업지원을 도모하며, '21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자금(조기창업자금)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최종

예산은 약 79억 원 할당되었고 80% 이상이 집행되었다.

2023년 지원사업의 경우, 이전 연도 사업과 명칭과 기능이 거의 유사하나, 전년도인 2022년도 사업에서 지목된 한계를 보완하여, 기존의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 지원에서 나아가 ‘근로유지성과금’을 새롭게 만들어 창업 및 기창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정기 모니터링과 상환금 관리를 통해 운영자금, 임대보증금(최대 3억 원 이내) 운용 및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했다. 특히, 자활기업 창업자금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창업 참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해당 인센티브는 자활기업인정일 기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당해 사업 예산은 총 80억 원 정도로, 이 중 90% 이상 집행되어 상기된 3개 연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의 주된 실적과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사업 실적과 성과의 경우, 운영자금은 연 80개소 지원인 초기 목표를 달성하여 총 81개소 기업을 지원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연 4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여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완료하였고, 조기창업자금의 경우 25개소 지원을 당해 목표로 두었고 총 9개소가 신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5개소 기업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목표했던 창업 개소인 80개소 중 83개소 지원에 성공하며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한다. 임대보증금 역시 100%의 목표 달성률을 보인다 (20개 목표, 20개 지원 달성). 광역센터 및 창업지원체계의 안정화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조기창업지원을 통해, 사업단 평균 운영 2년 미만으로 재정 지원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2023년의 실적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의 경우 각 80개, 20개로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며, 각 68개소의 (기)창업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총 65건에 해당하는 근로유지성과금이 지급되었다. 끝으로 조기 창업자금의 경우 10개소를 지원하였다.

2) 활성화 지원

이어서 활성화 부문의 경우, 10개 이상의 세부 사업을 통해 자활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공통 사업(경영관리 지원사업,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등)과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있고, 2021년 11개 사업이 운용되다가 2022년 증가해 15개, 그리고 2023년 소폭 감소해 13개 사업이 운용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 경영관리 지원사업

경영관리 지원사업은 성장단계와 각 자활기업의 특성에 맞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컨설팅 제공을 통해, 해당 기업의 사후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략, 운영 및 사업 확장과 같은 자활기업 경영에 관한 컨설팅, 상품 기술 지원(디자인, 브랜드 개발, 법률 등), 예비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창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법인격 취득 후 필요한 세무-회계, 인사를 지원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노무 분야 추가 및 확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 외에도 타 사회적 경제 기업 인증 지원 컨설팅 등 고도화된 성장지원 강화를 통해 자활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2021년 2억 원의 최종 예산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집행되었으며, 2022년에 예산이 소폭 줄어 1억 5천만 원의 최종 예산 중 약 1억 2천만 원이, 2023년에는 예산이 확대되어 5억 6천만 원의 최종 예산 중 약 4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 및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의 경우, 경영관리 지원 71개소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총 66개소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목표 개소의 103%를 달성했고, 컨설팅 지원기업 우수자활 기업 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듬해 2022년 목표 대비 128% 지원에 성공하며 전년 대비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 법인전환 분야 28건을 포함해 총 205건 지원하였다.

(2) (공통)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사업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자활생산품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역시 성장단계별 지원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판매 경로인 공공기관 입점을 위해 상품 공신력을 증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수자활상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판로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포함되며 상품성 검비를 위한 품질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자활상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판로지원 확대를 도모한다. 가령, 우수자활생산품 선정부터 품질개선 사업비 교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자활기업의 판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먼저 2021년 4억 5천만 원의 최종 예산 중 절반인 2억 1천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 다음 해인 2022년 최종 예산이 대폭 감소 되었고 2억 4천만 원 중 약 9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듬해인 2023년 예산이 다시 증가해 3억 3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 및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에는 17개소 자활기업이 국가공인인증획득지원에 선정되었다. 차 년도인 2022년 전년 대비 60% 지원 확대되었고, 신제품 디자인 지원을 통해 쇼핑몰 입점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23년의 경우, 우수자활생산품으로 33개 제품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제품 중 13개 제품에 대해 후속지원 또한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총 23개 제품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 (공통) 우수자활기업 선정

우수자활기업 선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활기업을 우수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모범사례로 활용해, 기업 창업 촉진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자활기업을 독려하고자 한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먼저 2021년 2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해인 2022년 2억 1천만 원의 예산 대부분을 집행해 2억 9백만 원이 사용되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최종 예산이 증가하였고 2억 8천만 원의 예산 대부분을 사용해 2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에는 우수자활기업으로 8개소를 선정해 장관 표창 및 현판, 포상금을 전달하였다. 2022년에는 목표 개소의 100%를 선정해, 선정된 기업 홍보를 연계하고 다각화를 지원하였다. 끝으로 2023년의 경우, 총 10개소를 우수자활기업으로 선정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4) (공통) 신용보증기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신용기금을 자활기업 대상으로 하여 특별보증하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며, 담보 능력이 미약해 금융권 진입이 어렵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 부담으로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활기업의 대출·채무 보증을 통해, 자활기업 진흥을 도모하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사업 확장 및 재정 건실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분할상환구조를 결합한 5년간 (협약서 제9조, 제10조) ① 보증료 지원, ②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 적용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 적용, ③ 경영 컨설팅 (6회) 수수료 신용보증기금 8: 개발원 2 비율 분담 지원이 있다. 또한, 해당 기금은 보건복지부 출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용자보증 제공과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통해 용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중앙자산키움펀드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8 배까지로 하여 용자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다른 세부 사업과 달리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1년 편성된 10억 원의 예산 중 1%도 집행되지 못했고, 2022년 역시 10억 원 중 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의 경우, 집행된 예산이 없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에는 총 50억 원에 달하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2019년 체결하였다. 출연 기금으로는 1차(2019.02.26.) 10억 원, 2차(2019.11.13.) 10억 원이며, 누계 지원실적의 경우 총 71개 기업을 대상으로 79건을 지원하였으며, 대출 및 약 114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지원하였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홍보물 현행화 1종을 제작하였고, 보증료 지원 한도 초과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홍보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대출 현황 등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보증료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공통) 규모화 및 협업 지원

규모화 및 협업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자활기업의 경영 내실화,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활기업 규모화 및 전국화로 확대 가능한 전략 업종 발굴과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 환경을 고려한 사업이다. 전국 자활기업 설립, 정책 기반 육성사업, 동종·이종 간 협업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및 포스트 코로나 등 정책 환경을 반영한 자활사업 전략 업종 육성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성장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진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2021년 4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90% 정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최종 예산이 대폭 증가해 약 7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90% 이상이 집행되었다. 이듬해인 2023년 역시 최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12억이 편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의 경우, 자활기업 3개 분야별 규모화 사업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지원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총 4억 정도를 지원하였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컨소시엄 4개 유형으로 100% 모집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했으며, 해당 기업 30%가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으며, 성과발표회와 온라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규모화 성과물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컨소시엄 지원이 2개소 확대되었고, 계속 지원 6개소를 포함해 총 13개소를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6) (공통) 도우미 역량 강화

도우미 역량 강화 사업은 자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3개년 내내 실시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우미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부여를 위한 공통 직무교육(도우미 사업과 역할, 직장 예절과 셀프리더십, 개인정보보호법,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자활 도우미 직무역량향상 교육과정, 복지·자활 도우미 역량향상 교육사업 등 해마다 조금씩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목적과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도우미의 중장기 경력 개발 및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형 교육, 예컨대 인생 변곡점, 커리어 로드맵, 만다라트 작성,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복지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센터 종사자의 업무 경감과 서비스 품질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도우미의 자립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에 운용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에는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집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2억 2천만 원의 예산 중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다. 끝으로 2023년에도 이전 2개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인 2억 3천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90% 이상 집행되어, 사업이 진행된 3개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의 경우, 교육 운영실적 부문에서 4개 과정이 45회 운영되었고 총 1,115명의 도우미 종사자가 본 교육을 수강하며 계획 인원 대비 99.1%를 달성하였다. 복지도우미 교육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하다. 2개 과정이 35회 진행되었고, 계획 인원 대비 103.5%에 달하는 906명의 도우미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였다. 자활 도우미의 경우 총 2개 과정으로 10회 수업이 진행되었고 계획 인원 대비 83.6%인 209명이 이를 수강하였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복지도우미 교육의 계획 인원 105%를, 종사자 업무 도움 효과 또한 4.46점을 달성하였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총 49회의 교육이 운영되었고 1,570명의 종사자가 이를 수료했고, 교육만족도와 순고객추천지수 목표점수 또한 달성하였다.

(7) (공통) 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우수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자문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업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맞춤형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독려하고 해당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지원사업부터 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자활사례관리 우수 운영체계 및 지원 사업 대회를 연다. 나아가 사례관리 성과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사례관리 성과 심층분석 연구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자활사례관리 사업 확대 대비 개발원-광역자활센터와의 긴밀한 사업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 지원과 권역 단위 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자활사례관리사의 잦은 이직 및 현장 내 전문가 부재 문제로 인한 사례관리사의 실무 도움서 개발 요청,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한 현행화 및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른 요구, 자활사례관리 기본 업무 체계화에 대비하여 기존 매뉴얼 업데이트 개발로 사업 안정화 도모를 토대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의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자활사례관리 사업 중인 지역자활

센터이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2021년 약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다. 2022년에는 3억 원의 90% 이상이 집행되었고, 2023년 역시 3억 원이 편성되어 90% 이상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에는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국 자활사례관리 사업센터 90개소 중 65개소(72.2%)가 신청하였고, 이 중 46개소(51.1%)가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현장 모니터링의 경우, 지원 기관 중 선정심사 점수상 하위 각 3개소 총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사례관리 성과 향상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였다. 역량 강화 지원 부문에서는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해 38명이 참석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4.70점 (5점 만점)으로 특강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편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결과 공유에 있어서 46개소 사업 결과 모음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공유 확산을 추진하였다. 2022년에는 매뉴얼 1종을 개발·제작했고, 자체제작으로 외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지역 맞춤형 현장 지원사업 2년 차로, 자활 사례관리 성과 심층분석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자활사례관리 우수 운영체계 및 지원사업 대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8) 경영위기 관리사업 ('21~'22)

경영위기 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임차자금, 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성장단계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2021년과 2022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2021년에는 총 33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5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이듬해인 2022년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 약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10만 원 초과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의 경우, '19년 대비 '20년도 매출 총액이 감소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총 두 차례 공모를 진행해, 1차에는 210개소를 선정, 약 13억 원을 지원하였고,

2차시 27개소를 선정해 2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목표 개소 대비 60%를 지원할 수 있었고, 지원대상의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공모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9) 우수 청년 사업 ('21~'22)

우수 청년 사업은 자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활성화 세부 사업으로, 청년 세대의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개진되었다. 특히,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자활역량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을 도모하였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2021년 3천만 원이 배정되어 30% 이상이 집행되었고 이듬해인 2022년에도 3천만 원이 배정되어 6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18년 하반기 13개 사업단에 불과하던 지원 사업단이 매우 큰 폭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2021년 총 83개 사업단으로 양적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청년 우수 사업단 선정과 시상, 참여자와 취·창업 종결자 대상 격려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활동 또한 수행하였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우수사례 목표치의 90%를 선정했고, 우수 사례집 홍보물 배포를 통해 성과 공유가 전파되어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다.

(10) 정보시스템 개편 ('21~'22)

정보시스템 개편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당해 사업명: 자활지원사업 정보화 구축) 추진된 것으로, 비대면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 유지관리를 통해 금융정보 모니터링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유지관리 활동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운용된 예산에 있어서 2021년에는 편성된 20억 원 정도의 예산 50% 이상을 집행하였고, 이듬해 대폭 감소해 편성된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전부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의 경우,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과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운영관리, 그리고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22년에는 2분기 조기 집행이 완료되어 전체 예산이 전부 사용되었고 온라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1)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22~)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교육 인프라 확보 등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허브를 세우고자 2022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성장단계별 지원형 활성화 사업이다. 자활근로 사업장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사업 간 시너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건립과 지역자활센터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운용된 예산은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인 20억 원을 전액 집행하고 30만 원 초과하였으며, 이듬해인 2023년에는 예산이 대폭 상승하여 약 50억 원이 편성되어 30억 원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에는 목표 대비 100% 지원에 성공해 총 4개소를 지원했고, 지자체 관심 증폭으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게 되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2023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차년도인 2023년에는 지역자활센터 신축 분야에 있어서 전년 대비 50% 증가한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역시 50% 증가하였다.

(12)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2~)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기업별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시도별 자활기업 지원 편차를 완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균형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마찬가지로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자체 자활기금 적립 감소 예측에 따른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운용된 예산은 먼저 2022년에 편성된 예산 30억 원 중 10%가 집행된 것과 달리, 다음 해인 2023년에는 편성 예산 약 32억 원의 80% 이상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에는 선정기관의 채용률이 70%에 달했고, 채용 인력 중 청년(39세 이하)이 34%를 차지하였다. 이듬

해인 2023년에는 신규 51개소 자활기업을 선정하여 목표 대비 101%인 118건 지원에 성공하였다.

(13) 자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22~)

자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사업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경제적 성과 확대를 도모,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2022년 시작되어 2023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용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 편성된 약 50억 원 중 10% 이상이 집행되었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예산이 늘어 약 5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90%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이는 수치로, 당해 지원사업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해 전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에는 선정기업의 예산 집행률이 92%를 웃돌았고, 12개 시도 자활기업이 사업 개발 지원에 선정됨으로써 전국적 차원에서 향후 사업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해 2023년에는 1차에 110개소 그리고 2차에 86개소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목표 대비 196%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4) LMS 조기안착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확대 ('22~)

LMS 조기안착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확대 사업은 자활사업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기 주도 학습 촉진부터 혼합교육 설계 확대 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온·오프 연계형, 강좌 간 연계형, 플립러닝형(온라인 사전학습/토론형 수업 강화)) 개발 다양화를 도모한다. 자활 TV 콘텐츠 확충 및 LMS 학습정보 큐레이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직무별 학습경로를 제시해 학습자의 경력관리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자활기업 창업, 운영 관련 필수지식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운용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에는 약 1억 원이 편성되어 77%가 집행되었고, 다음 해인 2023년 또한 약 1억 원이 편성되어 그중 70%가 넘는 예

산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에는 목표 실적의 100%를 달성하였고 자체 제작으로 외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다음 해인 2023년의 경우, 42건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콘텐츠를 약 6만 명이 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지도부터 만족도, 활용도 목표점수 또한 달성하였다.

(15) 우수자활 생산품 품질개선지원 ('21)

우수자활 생산품 품질개선지원은 2021년에만 진행된 사업으로, 굿스굿스 선정상품에 대한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설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성장단계별로 지원되며, 운용 예산으로는 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으로는, 우수자활상품(굿스굿스) 10개 상품에 대해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으로 지원하였다.

(16) 펀드운용체계 연구 ('22)

펀드운용체계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 제 2항, 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I(자활근로사업 매출관리)를 비롯해,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 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중앙자활키움펀드의 실제 운용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펀드운영 방안을 마련해 펀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사업은 2022년 단일 연도에만 실시되었지만, 이듬해 효과성 연구의 일환으로서 자활사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운용된 예산은 2천만 원 정도로, 100%가 집행되어 사업 예산이 전부 지출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으로 운용체계를 다룬 연구보고서 1건이 완성되었으며 관련하여 후속 과제가 제시되었다.

(17)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 ('23~)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은 자활기업의 창업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자활사업단의 낮은 운영자립도를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자활사업 지침이 2022년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준비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며, 한국자활연수원-광역자활센터 공동교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운용된 예산은 1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되어 1억 8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으로는, 교육 인원의 경우 초기 목표 대비 159.1% 그리고 교육만족도의 경우 초기 목표 대비 105.3% 달성하였다. 또한, 교육 인프라 간 사업수행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었다.

(18)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사업 ('23~)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 3 및 제 18조의 6(고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와 경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자 생애주기별 자활정책 개발의 필요성 증대를 토대로 추진되어, 해당 사업을 통해 자활 근로 및 자활기업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실태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운용된 예산은 2억 원으로, 이 중 99% 이상이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으로는, 먼저 202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연구와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평가위원회의 평균 점수도 각 93.5점 그리고 92.5점을 받았다.

〈표 II- 2〉 활성화 부문 연도별 세부 사업 ('21~'23)

	공동 (3개 연도)							2개 연도 실시							단일 연도 실시			
	경영 관리 지원 사업	자활 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우수 자활 기업	신용 보증 출연금	규모화 및 협업 지원	도우미 역량 강화	사례 관리 지원	경영 위기 관리 사업	우수 청년 사업	정보 시스템 개편	자활 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자활 기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자활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LMS 조기 안착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확대	우수 자활 생산품 품질 개선 지원	펀드 운용 체계 연구	자활 기업 창업 지원 교육 사업	자활 사업 실태 조사 연구 사업
'21	●	●	●	●	●	●	●	●	●					●				
'22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인 중장기자산키움펀드 사업결산 3개년 자료를 요약하여 도식화한 것임

3) 지역균형 발전 자금 지원

(1) (공통)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자활사업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장 지원 등 자활사업장 공간과 제반 시설 마련 그리고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 사업지원비 매칭을 필수로 함으로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용된 예산의 경우, 2021년에는 약 25억 원이 배정되어 20억 원 이상 집행되었다. 다음 해인 2022년 전년 대비 증가해 35억 원 배정되어 90% 이상 집행되었으며, 이듬해인 2023년 또한 예산이 증가해 약 60억 원이 배정, 이 중 43억 원 정도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의 경우,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의 연초 목표로 하였던 50개소에 대한 사업 지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1~2차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 95개 사업단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비 반납 3개 사업단을 제외한 92개 사업단(96.8%)에서 사업이 운영되었다. 2022년의 경우, 연초 계획 대비 200%에 달하는 개소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환경 등 중점 사업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도 이끌었다. 끝으로 2023년의 경우, 1차에 67개소 그리고 2차에는 66개소, 3차에는 9개소를 지원하며 연초 목표 대비 142% 지원을 달성하였다.

(2) (공통)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광역 단위 사업 규모화, 광역 자활기업 설립 지원 등을 위해 광역 자활센터 주도의 사업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화 생상품 품질 향상과 품질인증 획득, 브랜드 개발에 관해서도 지원하고자 한다.

운용 예산에 있어서, 먼저 2021년에는 6억 원이 편성되어 전액 가까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해인 2022년 7억 원 정도 편성되어 약 5억 6천만 원 지출되었다. 이듬해인 2023년의 경우, 21년과 22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해 약 2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절반 넘게 집행되었다.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와 실적을 보자면, 사업이 시작된 2021년의 경우, 목표하던 개

소를 넘어 총 15개소의 16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33% 달성하였다. 개소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총 6억 원 교부 완료함으로써 대상 개소 모두 100%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 점검 100%를 목표로, 사업 추진 현황 파악과 성과 관리 절차를 보완하고자 했다. 다음 해인 2022년의 경우, 자원체계 다각화 계획을 전부 실행하였고, 후속 사업으로 지속적 발전 체계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선정 대상의 매출 17% 그리고 고용의 경우 19% 증가하였다. 끝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사업지원이 2개소 증가하면서 1차에는 17개(신규 10개 및 후속 7개), 2차에는 4개소를 지원하였다.

(3) 자활센터 시설개선 ('22~)

자활센터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자활센터 개·보수를 통하여 참여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 구축 등을 통해 자활센터가 전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목적 아래 추진되기 시작했다.

운용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약 62억 원이 편성되어 그중 11억 원 정도 집행되었고, 이에 따른 주된 성과와 실적은 초기 계획 중 18%에 해당하는 개소가 선정되었고, 이들 기관의 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나아가 개선 지원 대상을 넓혀 광역자활센터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3. 유사 발전 펀드 운용 현황

현행 중앙자활자금의 효과성과 그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다룬 선행연구와 더불어 타 발전 펀드의 집행 과정과 효과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자활자금을 다룬 기존 연구가 상당히 제약되며, 효과적인 운용을 보이는 유사 타 기금의 사업 내용 등을 통해 모종의 함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되기 때문이다. 중앙자활자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유관기관의 설립 목적 아래 기금 또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사례가 발견된다. 여러 기금(자금)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앙자활자금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 있어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1) 녹색자금과 효과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모종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대표 사례로 살펴본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각 자금 또는 기금의 형성 배경과

운용 과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중앙자활자금에 대해 유사 체계를 가진 공공 펀드가 갖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녹색자금

먼저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산림환경의 보호 및 기능 제고, 국외 산림자원 조성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환경 기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한 사업이다. 녹색자금은 복권 수익금과,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리고 자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산림환경을 지원하는 9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가령, 수목원·휴양림 등의 조성, 운영 사업, 산림환경기능 제고에 관한 임업인 교육 및 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본 자금의 사업 추진은 협약체결부터 중간 평가, 사업평가 등 여타 자금의 집행 과정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산림환경 조성에 필요한 특수 작업 등이 필요한 탓에 현장·안전 점검이 사업 진행 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녹색자금을 통해 운용되는 지원 사업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먼저 나눔숲의 경우 실외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관, 육아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이용·거주자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고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여 일종의 복지시설로 활용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는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증진, 복권 수익금 사용 취지에 알맞은 최적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데에 기본방침을 두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넓혀가고자 한다.

지원 규모의 경우, 녹색자금 100% 지원하여 개소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20년 768개소, '21년 802개소, '22년 828개소로 설치 수를 넓혀가고 있다(누적 기준). 다음으로 나눔길은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간에 환경적인 목재를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지원 규모 및 기본방침은 나눔숲과 동일하다. 이 역시 해마다 지원 실적이 늘어나 '22년 기준으로 200개소가 넘는 공간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공모제로, 개괄적인 선정 방향은 사업 타당성, 공정과 윤리,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하며, 분야별로 서로 다른 선정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관한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 II-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진한 사업의 실질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제 환경기구의 흐름에 발맞추어, 여러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유휴토지(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추가로 탄수흡수원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활용을 높이고자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산림청 보도자료, 2024.9.10.). 즉, 국제 동향을 추적하는 동시에 추진되지 못한 자원 조달 사각지대 등을 발견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자금 설치의 취지와 시의성을 담보한 펀드 운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의 중앙자활자금과 연결 지어 보자면, 자금의 지원 대상이 궁극적으로 모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향하지만, 자금 운용 계획 등에 있어서 중앙자활자금의 경우 현행 자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다소 단면적인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녹색자금의 경우 국제 동향을 분석·반영하고 환경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사각지대를 발견함으로써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앙자활자금의 경우 유관 정책이나 국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보다는 기존 자활사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운영되는 경향을 띤다. 그러한 이유로 자금을 통해 추진되는 세부 사업이 과연 자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시의성을 갖춘 내용 등을 도모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불분명한 면모를 보인다.

나아가, 비단 녹색자금의 강점을 넘어, 해당 자금이 운용되며 빚어지는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며 중앙자활자금 운용의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중앙자활자금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마찬가지로, 녹색자금 또한 몇몇 한계를 보여왔다. 가령, 예산 교부 기관의 법 위반 문제가 상당함에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은 채 4년 동안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아세안익스프레스, 2023.10.13. 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관련 위반 진정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점은 우리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중앙자활자금에 대한 모종의 함의로 이어진다. 중앙자활자금 또한 녹색자금과 마찬가지로 사업 및 기업 지원의 목적을 갖기에, 사업에 운영되는 과정 예컨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즉 사업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익 구조 등 단순히 사업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고용된 실제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질적 성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 3〉 녹색자금 주요 사업개요

사업명	개요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 실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생활, 사용 공간 내 녹지조성을 통해 삶의 질 제고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에 일조 ● 대상지 - 지원 자격을 갖춘 시설의 실외 공간(옥상 포함) *옥상의 경우 식재기반 조정을 위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내용 - 실외 숲 조성 또는 옥상 녹화 ● 조성방향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수혜자가 이용하기 편한 숲을 조성하되, 과도한 식재나 시설물 설치의 지양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목재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및 이용공간에 관한 환경 개선을 진행하여 이들 집단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일조 ● 대상지 -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시설 내 공간 *단, 특정 대상용 공간은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내용 - 목재 활용 실내 환경 개선 ● 조성방향 -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목재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용자 특성과 공간 용도를 고려한 목재 가구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무장애나눔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숲길을 조성하여 보행 약자 집단이 불편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산림 체험을 도모 ● 대상지 - 신청자가 소유 혹은 사용권을 갖는 토지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행 약자 집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 내용 - 목재데크, 황토판 등 숲길 조성과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의 증진하는 시설 설치 ● 조성방향 - 산림훼손과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행 약자 집단의 이용 편의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시공
치유의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산림치유 제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의 기반 마련 ● 대상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권을 가진 임야 *단,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 최소면적 기준에 충족해야 함 ● 내용 - 치유의숲 운영 기반 및 치유센터 등을 조성 ● 조성방향 - 환경훼손이나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림환경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끔 조성하는 동시에, 복권기금 지원 사업임을 고려, 신체적 약자 집단의 이용 편의를 인식하여 조성
민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시설여건을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족도 증진에 일조 ● 대상지 - 「산림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시설 중 민간 운영 시설 ●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시설 내 객실, 위생·편의 시설 등 보완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장애인, 노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수혜자의 시설 이용편의 개선을 가장 우선하여 조성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23).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서 재구성

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증진기금)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을 추진, 국민 개개인이 건강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1997년부터 조성된 공공기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운용되어 담배 부담금 등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조달받으며 국민건강증진계정과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다(김혜련, 여지영,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기금의 주요 사업의 경우,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등 4개 분야 내 총 1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비중이 가장 커, 당해 예산의 50% 내외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해당 제도 운용에 지출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제도 외 14개 프로그램의 경우, 흡연자 대상의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금연 교육, 광고 등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끔 건강생활 지원사업을, 예방 차원에서 보건교육과 자료개발, 질병 예방·검진·관리 그리고 암 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통계 기반 건강 지원사업을 위하여 보건 통계를 작성, 보급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기금이 시행된 1997년 189억 원을 기점으로, 예산 규모가 급증하여 2023년 3조 6,715억 원, 2024년 소폭 줄어 3조 6,377억 원¹⁾(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보건복지부, 2024). 규모 차원에서 일면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시행 시점 대비 100배 이상 증액되어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가진 펀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펀드의 효과성을 보고자 하기에, 기금운용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증진기금에 관한 효과 진단과 측정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및 그에 대한 개선안을 추적함으로써,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공적 펀드의 효과성 측정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또한 현행 중앙자활자금에 대해 대두되는 운용 효과성과 같은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이에 관한 개선안을 다룬 분석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근본적으로 기금 조성의 정당성,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미흡한 기금운용 체계나 기금의 과다 지출 등 기금 활용의 적절성,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이어져 왔다(김혜련 외, 2013).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1) 예산 규모는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한 총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었음(보건복지부, 2024)

기금의 성격을 가지며 재무 관리와 기획재정부에 의한 기금운용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과정을 통해, 자금 운용의 효과성을 계속해서 검증받고 분석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앙자활자금과 일면 차이를 갖는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 아래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매년 평가함으로써 전자의 경우 존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후자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의 성과와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의 적정성, 자산운용관리 효율성을 평가한다. 그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기금존치평가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자금의 존치 타당성, 추진 사업의 적정성, 나아가 재원 적정성도 함께 평가받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적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4). 이에, 증진기금과 같이 중앙자활자금 또한 자문에 관한 재무 관리, 컨설팅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여러 자활사업 현장, 학계 및 재정 전문가를 통한 자금 평가를 진행하여 전보다 생산적인 자금 운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 4〉 국민건강증진기금 주요 사업개요

No.	건강보험제도 외 단위 사업	주요 내용
1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재활병원 건립 및 공공 재활 프로그램 추진
2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후 건강 관리를 고취하는 등 임신부 친화적인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며,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도 함께 실시
3	노인의료보장	치매의 조기 예방 및 관리, 치매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센터와 상담콜센터 운영, 공공요양병원 기능보강 등의 사업 추진
4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인 WPRO(Western Pacific Region)에 속한 보건의료 취약 국가를 지원하여 국제 차원의 보건 협력에 일조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추진
5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저소득층과 의료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대상 치매관리비 지원 및 실명 예방 등과 같은 사업과 신생아 장애여부 조기 검진을 통해 영구장애를 예방하는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 추진
6	공공보건의료확충	장기기증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한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 혈액안전관리 체계 구축,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건강정보제공 사업 진행, 도시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제고를 위한 지역 보건지소 확충,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보건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 사업 실시
7	보건산업육성	질병 극복과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실용화 사업이나 신약 개발 지원 등 첨단의료기술개발, 의료 IT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보건 분야 기술개발을 증진 지원
8	한의학 연구 및 정책개발	한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연구 추진
9	국민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조사연구 진행, 각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건강관리,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사업, 호흡기질환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금연 지원서비스 추진 및 진행,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주폐해예방관리, 건강증진사업기술지원 등이 포함됨
10	암 및 희귀질환지원	암정보센터 운영, 암예방 홍보, 암검진 및 지역 암센터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암 관리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 사업, 우리나라가 회원국인 국제 연구소 내 분담금 납부 등
11	정신질환관리	정신질환 인식 개선, 정신의료기관 평가 진행. 자살 예방과 중독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 사업 진행
12	질병관리본부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국가 예방접종 실시,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감염병·유전체 분석 기반 연구, 만성별 관리 기술 대상 R&D 진행. 감염병과 만성질환 조사연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과 더불어 생물테러 대비, 의료 관련 감염관리 등 각종 (비) 감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동향 Vol.1'에서 재구성



중앙자활자금 사업 효과성 분석

1. 창업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2.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3. 시설환경 발전 자금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4. 사업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Ⅲ

중앙자활자금 사업 《 효과성 분석

1. 창업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1) 창업지원 사업의 구성, 사업 수행 및 자금 활용

(1) 창업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창업 운영자금 지원사업과 창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22년과 2023년 자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활기업 창업 운영자금 및 창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현재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광역자활센터가 주체가 되어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1〉 창업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사업 수행 여부		지원 대상	자금 활용 주체	사업 내용
		2022	2023			
창업지원	창업 운영 자금	✓	✓	자활기업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자활기업 창업을
	창업 임대 보증금	✓	✓	자활기업	광역자활센터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단

(2) 창업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 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의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분석 여건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의 그해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그리고 각 자활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2년, 2023년 2개년 자료)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자활기업들이 자금을 어느 정도 혜택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2년은 창업 운영자금은 83개소, 창업 임대보증금 20개소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2023년은 창업 운영자금 58개소, 창업 임대보증금은 36개소로, 2022년 대비 2023년 운영자금 및 임대보증금 참여자 수혜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 예산 지원 규모를 보면, 창업 운영자금은 2022년과 2023년이 같았지만, 창업 임대보증금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 창업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성과

사업	사업 목표	기금 수혜(단위: 개소 %)		성과지표
		2022	2023	
창업 운영자금	매출액 향상	83개소 (5,567백만원)	58개소 (5,567백만원)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창업 임대보증금	매출액 향상	20개소 (615백만원)	36개소 (1,138백만원)	

2)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별 실적 및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 대상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 매출액, 매출총이익 그리고 고용자 수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세분화해서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창업 운영자금과 창업 임대보증금 수혜 자활기업을 분리해서 효과성 분석을 시행한다.

먼저, 2022년 창업 운영자금의 혜택을 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22년 107,453,341.65원에서 2023년 134,030,372.07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출총이익 역시 2022년 30,450,335.79원이었던 것이 2023년 39,295,552.17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 운영자금은 나름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6,412,280.64원이었지만, 2023년 -1,142,470.85원으로 감소하였다.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증가한 반면, 영업 순이익은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3〉 2022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운영자금)

(단위: 원)

사업	사업 목적	수행 연도	성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창업지원	경제적 성과 향상	2022	107,453,341.65	30,450,335.79	6,412,280.64
		2023	134,030,372.07	39,295,552.17	-1,142,470.85

2023년 창업 임대보증금 혜택을 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22년 142,674,290.11원에서 2023년 132,031,360.83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은 2022년 47,683,847.32원에서 2023년 52,622,721.50원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수혜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매출총이익에서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1,062,302.32원에서 2023년 -7,015,307.61원으로 감소하여, 2022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증가했지만, 영업 순이익은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4〉 2022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임대보증금)

(단위: 원)

사업	사업 목적	수행 연도	성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창업지원	경제적 성과 향상	2022	142,674,290.11	47,683,847.32	-1,062,302.32
		2023	132,031,360.83	52,622,721.50	-7,015,307.61

◇ 2023년 창업 운영자금

먼저, 2022년 창업 운영자금 혜택을 받은 자활기업 32개소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22년 80,830,557.94원에서 2023년 102,015,911.46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출총이익 역시 2022년 21,656,377.03원이었던 것이 2023년 25,259,156.18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 운영자금은 매우 높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1,941,457.94원이었던 것이 2023년 330,074.42원으로 감소하여 2022년보다 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5〉 2023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운영자금)

(단위: 원)

사업	사업 목적	수행 연도	성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창업지원	경제적 성과 향상	2022	80,830,557.94	21,656,377.03	1,941,457.94
		2023	102,015,911.46	25,259,156.18	330,074.42

◇ 2023년 창업 임대보증금

2023년 창업 임대보증금을 혜택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22년 211,787,160.35원에서 2023년 170,377,403.67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은 2022년 52,712,530.54원이었던 것이 2023년 50,401,640.98원으로 이 역시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매출총이익에서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6,041,256.04원에서 2023년 -7,671,982.87원으로 감소하여 2022년보다 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6〉 2023년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창업 임대보증금)

사업	사업 목적	수행 연도	성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창업지원	경제적 성과 향상	2022	211,787,160.35	52,712,530.54	-6,041,256.04
		2023	170,377,403.67	50,401,640.98	-7,671,982.87

3) 창업지원 사업의 지원 여부에 따른 사업별 실적 및 효과성 평가

창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창업지원 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에 대한 통계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원 여부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창업운영자금, 임대보증금 그리고 창업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따라 매출액에 어떤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창업 운영자금을 한번이상 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 번 이상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023년 매출액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지원 기관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감소하였다. 둘째, 임대보증금을 2022년과 2034년 두 해 동안 1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과 2023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22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다만,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2023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원 받은 기관 간 매출액 비교분석을 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보다 매출액이 전년대비 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에 있어서는 창업운영자금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보다 매출액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보다 매출액의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그 감소 폭이 작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 자활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독립표본 t검정) - (1) 매출액

(단위: 만원)

구분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창업 운영자금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지원	110,097,277.80 (212,562,269.242)	120,273,960.40 (248,684,978.142)	▲ 10,176,682.6
	미지원	283,117,479.64 (212,562,269.242)	244,450,730.97 (758,392,088.004)	▼ 38,666,748.67
	t	-1.172	-3.700***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지원	164,827,723.81 (331,839,893.052)	151,488,857.38 (329,304,489.760)	▼ 13,338,866.43
	미지원	270,993,691.07 (1,419,157,267.078)	232,491,101.07 (730,049,271.214)	▼ 38,502,590
	t	-.512	-.881	
2022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 +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모두 지원	84,190,885.14 (71,526,315.629)	86,567,212.33 (68,254,850.432)	▲ 2,376,327.19
	미지원	271,244,658.85 (1,406,676,891.205)	231,197,755.33 (720,605,120.173)	▼ 40,046,903.52
	t	-.703	-.582	
2023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 +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모두 지원	67,364,723.33 (61,836,757.503)	89,318,130.54 (113,024,525.988)	▲ 21,953,407.2
	미지원	267,765,531.81 (1,393,189,347.612)	231,268,103.75 (720,819,485.504)	▼ 36,497,428.06
	t	-.431	-1.041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매출총이익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창업 운영자금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운영자금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매출총이익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둘째, 임대보증금의 경우, 두 집단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다만, 동일집단 내에서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총이익이 증가한 반면, 지원받지 못한 자활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22년 기준 운영자금과 보증금임대를 동시에 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동일 집단 내에서도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매출총이익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3년에 창업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동시에 받은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매출총이익의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지원은 창업 운영자금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임대보증금 지원은 자활기업의 매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8〉 자활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독립표본 티검정) - (2) 매출총이익

(단위: 만원)

구분	매출총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창업 운영자금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지원	29,892,642.22 (66,547,115.440)	32,186,619.03 (82,211,279.279)	▲ 2,293,976.81
	미지원	139,458,568.07 (1,344,559,430.731)	84,812,210.73 (424,633,039.110)	▼ 54,646,357.34
	t	-.806	-3.258***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지원	51,812,317.79 (100,625,716.420)	52,009,289.36 (111,763,086.976)	▲ 196,971.57
	미지원	132,418,050.02 (1,307,834,419.096)	79,287,541.44 (408,064,159.261)	▼ 53,130,508.58
	t	-.422	-.533	
2022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 +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모두 지원	34,330,114.32 (46,735,817.625)	33,776,097.67 (51,426,351.022)	▼ 554,016.65
	미지원	131,331,494.01 (1,294,978,349.339)	78,750,120.29 (401,053,121.405)	▼ 52,581,373.72
	t	-.396	-.582	
2023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 +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모두 지원	31,899,855.78 (42,477,517.378)	27,478,794.79 (27,478,794.79)	▼ 4,421,060.99
	미지원	129,469,373.47 (1,282,410,672.346)	78,980,399.69 (401,242,622.945)	▼ 50,488,973.78
	t	-.228	-.679	

*p < .05, **p < .01, ***p < .001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 간 영업이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분석한 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과 다르게 사업을 통한 순수한 영업이익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분석 결과 중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로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영업이익 감소 폭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 기준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지 못한 자활기업보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보다 순수 영업이익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 중의 하나는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보다 영업이익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자활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 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해야 할 것은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정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II-9〉 자활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독립표본 t검정) - (3) 영업이익

(단위: 만원)

구분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창업 운영자금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지원	5,338,682.97 (26,874,388.959)	-564,213.84 (26,420,532.070)	▼ 5,902,896.81
	미지원	-1,115,343.18 (69,130,280.161)	-5,707,414.62 (78,691,471.030)	▼ 4,592,071.44
	t	.916	.758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지원	-857,922.28 (42,261,289.758)	-6,627,910.36 (75,636,358.610)	▲ 5,769,988.08
	미지원	-455,347.67 (67,159,923.131)	-4,881,976.53 (4,495,586.260)	▼ 4,426,628.86
	t	-.041	-.062	
2022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 +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모두 지원	6,290,471.04 (24,060,974.982)	-2,181,846.11 (30,069,800.159)	▼ 8,472,317.15
	미지원	-672,035.82 (67,000,541.876)	-5,073,913.42 (74,571,374.427)	▼ 4,401,877.6
	t	.549	.201	
2023년 기준 창업 운영자금 + 임대보증금	2022년, 2023년 모두 지원	-1,959,965.89 (17,325,863.021)	1,323,951.07 (23,158,613.955)	▲ 3,283,916.96
	미지원	-460,848.12 (66,457,827.076)	-5,179,068.87 (74,666,708.081)	▼ 4,718,220.75
	t	-.068	.460	

*p < .05, **p < .01, ***p < .001



2.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1)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구성, 사업 수행 및 자금 활용

(1)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본 연구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아래 <표 III-10>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교육·훈련 지원과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자활기업 창업교육지원, 사례관리 지원,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교육 등 4개 사업을, 인건비 지원에는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 사업에 따라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 교육·훈련 지원에 속하는 사례관리지원과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 교육 사업은 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의 한계, 향후 사업 지속이 불분명한 점 등의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총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자활기업 창업교육지원은 2023년 시작된 사업으로, 광역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이 자활기업 종사자, 광역자활센터 종사자·주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기업 창업, 법인 형식의 자활기업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화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이어서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자활기업에서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제공을 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관해, 각 사업의 사업 주체와 사업 내용은 아래 <표 III-10>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III-10〉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사업수행여부			지원대상	기금활용주체	사업내용		
	2021	2022	2023					
역량 강화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	✓	개발원	개발원	대국민 대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유튜브 업로드	
		자활기업 창업교육지원		✓	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창업 및 법인화 교육	
		사례관리지원 ¹⁾	✓	✓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개발원의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지원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 교육 ¹⁾	✓	✓	✓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주1. 사례관리 지원과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 교육은 자료의 한계로 성과 분석이 불가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2)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 효과성

다음으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금 수혜 현황과 본 연구에서 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위한 지표는 <표 III-11>과 같다. 먼저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 및 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콘텐츠로서, 2022년에는 77,379 만 원, 2023년에는 70,226 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75.1%, 65.6%를 집행하였다. 예산은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 개발·제작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지도, 교육만족도, 활용도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사업 수행 첫 해로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지도, 교육만족도,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관련 지표 활용이 가능하다.

자활기업 창업교육의 경우 사업 예산으로 2023년 184,237 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97%). 자활기업 창업교육은 자활기업의 창업과 법인화 촉진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만족도와 자활기업 수의 증가, 법인 기업 수의 증가를 효과성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3,333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사업 시작이 지연되어 낮은 집행률(10.1%)을 보임. 그러나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776,045 만 원의 예산 중 88.4%를 집행하며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과 집행률을 보여주었다. 자활기업에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효과성과 성과를 높이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제적 성과로서 매출액의 향상과 고용 성과로서 총고용, 추가고용, 취약계층 고용 등을 효과성 지표로 고려하였다.

〈표 Ⅲ-11〉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 성과

사업	사업 목적	기금수혜(단위: 만원) 예산(집행율)		효과성 평가 지표
		2022	2023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인지도 향상 사업 활용도 향상	77,379 (75.1%) ¹⁾	70,226 (65.6%)	자활사업 및 사업 주체(한국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 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 시청/청취율 · 인지도 · 교육 만족도 · 활용도
자활기업 창업교육	자활기업 창업 지원 개인기업의 법인화 지원		184,237 (97%)	· 교육 참여자수 · 교육 만족도 · 자활기업 창업 증가 ·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 기업 문화,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자활기업 전문인력지 원사업	자활기업 성과 향상	304,333 (10.1%) ²⁾	2,776,045 (88.4%)	· 경제적 성과-매출액, 영업이익 · 고용 성과-총고용, 취약계층 고용 · 사회적 성과 - 사회적가치 실천 정도 ·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주1.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 첫해에는 담당 인력 채용 지연으로 예산집행을 저조

주2. 2022년 사업 시작 지연(10월)으로 3개월분만 산정하여 예산집행을 저조

2)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사업별 실적 및 효과성 평가

본 연구는 사업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체계론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사업별로 투입, 산출, 성과 요소를 제안하고 평가한다. 투입 요소는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예산만을 고려하였다. 산출 요소로는 해당 예산의 투입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및 교육 수행 건수, 교육참여자 수, 인력의 수 등을 의미하며, 성과로는 효과성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산출을 통해 가져온 변화를 측정한다.

각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자활기업 창업교육,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의 사업별 효과성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분석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103,000 만 원, 2023년에는 107,000 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 중 75.1%인 77,379 만 원, 65.6%인 70,226 만 원을 집행하여, 이를 통해 42개의 콘텐츠를 개발,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사업 수행 첫해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관련 조사나 추계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2023년에는 콘텐츠 활용(청취, 시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한 해 동안 57,065명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유튜브 계정과 자활정보시스템 관련 콘텐츠를 시청, 청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대한 성과 목표인 6,000명 대비 거의 10배에 가까운 높은 콘텐츠 활용도를 보였다. 2024년에는 ‘참여자 자기주도 학습자료 개발·보급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120,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45개의 콘텐츠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계정과 자활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콘텐츠를 알고 있는지, 몇 개나 시청했는지, 시청한 경우 만족도와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인지도, 만족도, 활용도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지도, 만족도, 활용도를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인지도는 해당 사이트 접속자를 대상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콘텐츠를 알고 있느냐에 대해 과반이 넘는 54.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67점, 활용도는 또한 5점 만점에서 3.69점으로 제시하였다. 만족도와 활용도의 경우 각기 목표하는 값인 3.5점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목표하는 값의 설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해당 값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을 띤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범국민,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대상의 콘텐츠 활용을 높이는 것이 주된 성과일 수 있는 만큼 인지도, 교육만족도, 활용도에서 나아가, 콘텐츠별 접속자 수, 콘텐츠별 시청/청취자 수, 구독자 수, 좋아요 수 등의 증감으로 성과를 보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Ⅲ-12〉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	사업 목적	수행 년도	투입(단위:만원)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2022	77,379 (75.1%)	콘텐츠 42개 제작(목표달성 율 100%)	- ¹⁾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인지도 개선 활용도 향상	2023	70,226 (65.6%)	콘텐츠 42개 제작 (목표달성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활용(시청, 청취) 목표 6,000명 대비 57,065명(목표달성율 951.1%) · 인지도 54.2%²⁾ · 교육만족도 3.67점 (목표 3.5점 초과달성) · 활용도 3.69점 (목표 3.5점 초과달성)

주1)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 첫해에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2) 해당사업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교육만족도와 활용도는 5점만점 조사에 대한 응답 평균값임

(2)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의 효과성 분석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의 경우 2023년 시작된 사업으로 190,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그중 97%인 184,237 만 원을 사용하였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2% 정도 증액된 230,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약 68%를 집행하였다.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은 자활기업의 창업과 법인화 촉진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참여자 수, 교육만족도, 나아가 자활기업 수의 증가, 법인기업 수의 증가를 효과성 지표로 활용한다.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은 2023년 창업준비교육을 123회, 기존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23회 실시하여 총 146회의 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 교육에는 총 4,023명이 참여하여 교육참여자 수 목표 2,800명을, 교육참여자 대상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의 4.21점으로 목표 4.0점을 초과 달성하였다(아래 〈표 Ⅲ-13〉 참조). 2024년의 경우, 상반기에 창업준비교육 45회 1,412명, 보수교육 12회 337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을 63.5%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은 2023년 교육 제공 횟수와 참여자 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교육만족도 또한 목표점수를 초과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목표하는 값 설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이 역시 해당 값의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교육 성과의 경우 만족도에서 나아가 학습전이 등 실제 직무에의 활용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혹은 해당 교육의 목적 달성 정도로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III-13〉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	사업 목적	수행 년도	투입(단위:만원)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자활 기업 창업 교육	자활기업 창업지원, 개인기업 법인화 지원	2023	184,237 (97%)	교육 146회 실시 - 창업준비교육 123회 실시 - 보수교육 23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참여자 수 목표 2,800명 대비 4,023명(목표달성율 143.7%) - 창업준비교육 3,421명 - 보수교육 602명 · 교육만족도 4.21점(목표 4.0 대비 달성 105.3%) · 자활기업 창업 증가 ·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 기업 문화,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나아가 자활기업 창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자활기업 창업 및 법인화 증가를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 창업과 법인기업이 증가하여 해당 교육의 성과를 추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III-14〉에서 볼 수 있듯이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 이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활기업이 987개에서 1,073개로 86개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 또한 335개에서 367개로 32개, 협동조합 형태의 경우 189개에서 201개로 1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14〉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개소, %)

구분	자활기업수		자활기업 증감(%)	기업 유형별 기업수 (전체기업수 대비 유형별비중 %)			법인기업 증감
	2022년	2023년	2022년대비 2023년		2022년 ¹⁾	2023년 ²⁾	2022년대비 2023년(증가율)
전체	987	1,073	▲ 86 (8.7)	법인사업자	335 (33.9)	367 (34.2)	▲ 32 (9.4)
				개인사업자	463 (46.9)	505 (47.1)	▲ 42 (9.0)
				협동조합	189 (19.1)	201 (18.7)	▲ 12 (6.3)

*p < .05, **p < .01, ***p < .001

주1) 2022년 법인은 주식회사(258), 유한회사(69), 영농조합법인(2), 비영리법인(3), 사단법인(1), 합명회사(2)의 합이며, 협동조합은 일반(142)과 사회적(47)의 합임

2) 2023년 법인은 주식회사(284), 유한회사(74), 영농조합법인(2), 비영리법인(1), 사단법인(1), 합명회사(2)의 합이며, 협동조합은 일반(156)과 사회적(50)의 합임

또한 자활기업 창업교육 시행 이후 대표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직문화 동의,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Ⅲ-15〉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응답 전체 자활기업 대표자 624건의 사례와 2024년 응답 전체 자활기업 대표자 706건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조직문화 동의, 기업가 정신, 사회적가치 인식 정도 모두 2024년 값이 2023년에 비해 높다. 나아가 2023년과 2024년 모두 응답한 489건의 자활기업 대표 사례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 조직문화 동의, 기업가 정신, 사회적가치 인식 정도 모두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유의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문화는 자활기업 대표가 다음의 12가지 문항에 대해 자신이 속한 자활기업 내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이다. 12가지 문항은 구체적으로 협력, 배려, 개방성, 규칙준수, 혁신, 창의성, 효율성, 수평성과 같은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로, 개별 문항은 ‘우리 자활기업은 직원들 간의 협조적 관계와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자활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들은 상호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자의 방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서화, 책임, 관리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식적인 절차, 규칙, 방침의 준수를 강조한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을 신속하게 수용한다’, ‘혁신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절차

및 관행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은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자신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측정한다. 기업가 정신은 진취성, 혁신성, 개방성, 의지, 행동력, 결단력, 도전, 지역사회 기여,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반드시 해낸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혁신적이고 장래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자원을 획득·활용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이 있다’, ‘개인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및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업무기법이나 방법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다’, ‘기존방식이나 도구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새로운 일과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정,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편이다’, ‘보유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도 결집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 ‘유망아이템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편이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활동을 수행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투입 가능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한다’, ‘안정성보다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해야 할 일에 대해 위험이 따르더라도 추진하는 편이다’.

사회적가치는 자활기업 대표가 자신이 속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측정하여 조사한다.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척도는 13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구성원이 협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기업이다’,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다’, ‘근로자를 우선으로 대우하는 기업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사회 환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다’,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하는 기업이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3년 기준).

〈표 Ⅲ-15〉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 사업 시행에 따른 자활기업 대표자의 인식 변화
(대응표본 티검정)

(평균(표준편차), 단위: 점)

구분	조직문화 ²⁾			기업가정신 ³⁾			사회적 가치 ⁴⁾		
	2023년 (n=624)	2024년 (n=706)	t	2023년 (n=624)	2024년 (n=706)	t	2023년 (n=624)	2024년 (n=706)	t
전체	3.58 (.56)	3.68 (.53)	-	3.57 (.59)	3.65 (.57)	-	3.63 (.62)	3.73 (.57)	-
연속응답 (n=489)	3.59 (.58)	3.69 (.52)	-3.459***	3.57 (.60)	3.65 (.57)	-2.601**	3.64 (.62)	3.76 (.57)	-3.875***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이상아 외. 2023, 2024.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 1) 자활기업 창업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한 자활기업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나, 조직문화와 기업가 정신 인식 정도를 대표자 대상으로만 조사하여 자료의 한계로 대표자의 변화만을 분석하여 제시함. 또한 데이터의 한계로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는 못함.

따라서 2023년 교육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조직문화 동의, 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 인식 정도의 변화와 그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대응표본 티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2023년부터 시행하여 2023, 2024년 수행되었으므로 본 분석은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함

(3)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3,014,200 만 원, 3,141,000 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 중 304,333 만 원(10.1%), 2,766,045(88.4%)를 집행하였다. 2023년에는 시행 첫해로 사업 시작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낮았으나 2023년에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활용도도 높아 높은 집행률을 보여준다. 2022년에는 10월부터 3개월간 67개 자활기업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2022년에 선정된 67개 자활기업 전문인력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51개 자활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18개 기업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였다. 2024년에는 2023년 예산에서 35% 정도 증액한 4,247,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상반기에 절반 정도인 1,990,945 만 원(48%)을 집행하였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자활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사업으로 전문인력지원을 받은 기관과 받지 않은 기관 간의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고용인원의 증가와 같은 고용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와 같은 사회적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으

나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법인격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기업의 법인화를 장려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아래 <표 III-16>을 참조할 수 있다.

<표 III-16>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	사업 목표	수행 년도	투입(단위:만원)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자활기업 성과 향상	2022	304,333 (10.1%)	공모 접수 69개소 공모 선정 67개소	· 경제적 성과-매출액, 영업이익 · 고용 성과-총고용, 취약계층 고용 · 사회적 성과 - 사회적가치 실천 정도 ·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2023	2,776,045 (88.4%)	총 118개소 지원 -'22년 연속지원 67 개소 -'23 신규지원 51개소	

먼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독립표본 티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 III-17> 참조). 먼저 매출액의 경우,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의해 2022년 혹은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지원받은 118개소와 지원받지 않은 888개소를 비교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의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 모두 미지원 기업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나아가 두 집단 간 매출액 격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더 커진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원받은 자활기업 집단의 2022년 영업이익이 지원받지 않은 집단의 영업이익보다 낮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2023년 두 집단 모두 영업이익이 악화되었음에도 지원받은 자활기업 집단의 감소액이 더 작았으며 2023년에는 집단 간 영업이익의 차이가 유의해진다.

나아가 2022년부터 전문인력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67개 자활기업과 2023년 신규로 지원받은 51개 기업 그리고 지원받지 않은 888개 기업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의 경우 연속해서 지원받은 집단의 매출액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가장 높았지만, 그 차이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하나, 매출액은 확실히 더 높고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전문인력 지원은 자활기업의 매출액과 확대가능성을 높이는 경제적 성과를 가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Ⅲ-17〉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독립표본 티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단위: 만원)

구분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 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26593.8 (138695.9)	22724.9 (71116.7)	▼ 3,868.8	-47.5	-499.5	▼ 452.0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여부1	2022년 또는 2023년 지원 (n=118)	54821.3 (94180.9)	51314.9 (89720.9)	▼ 3,506.4	-1012.5 (10667.1)	-2886.5 (10826.7)	▼ 1,874.0
	미지원 (n=888)	23446.8 (142494.6)	19329.1 (67839.2)	▼ 4,117.8	60.1 (5999.0)	-2160.0 (6798.9)	▼ 2,220.1
	t	-2.139**	-4.397***		1.531	3.530***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여부2	2022년, 2023년 연속 지원 (n=67)	69152.3 (11213.6)	62429.5 (10293.9)	▼ 4,117.7	-1087.9 (13535.6)	-3305.7 (13911.0)	▼ 2,217.7
	2023년 신규 지원 (n=51)	35372.0 (5783.9)	37598.8 (6871.0)	▲ 2,226.8	-910.0 (4660.4)	-2369.1 (4972.2)	▼ 1,459.1
	미지원 (n=888)	23446.8 (14249.4)	19329.0 (6783.9)	▲ 6,722.8	60.1 (5998.9)	-215.9 (6798.9)	▼ 276.1
	F	3.008*	11.306***		1.179	6.440**	

다음으로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고용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총고용 인원 및 취약 계층(수급, 차상위, 기타취약계층의 합) 고용 인원의 차이를 독립표본 티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아래 〈표 Ⅲ-18〉 참조). 먼저 총고용 인원의 경우,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의해 2022년 혹은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지원받은 118개소와 지원받지 않은 888개소를 비교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의 2022년 및 2023년 총고용인원이 거의 3배 정도로 많았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지원받은 집단의 총고용은 증가한 것과 달리, 미지원 집단의 경우 감소한다. 나아가 두 집단 간 취약계층 고용 인원 또한 지원받은 기업이 더 많았으며, 지원받은 집단의 고용은 증가한 것과 달리, 미지원 집단은

감소하여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가 고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지원받은 기업을 2022년, 2023년 연속 지원 집단과 2023년 신규 지원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 간 총고용과 취약계층고용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연속지원 집단에서 취약계층 고용 및 총고용의 증가 정도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신규지원집단, 그리고 미지원 집단은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지원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을 촉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성과를 가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II-18〉 자활기업전문인력 지원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명)

구분	총고용 인원			취약계층고용 인원		
	2022년	2023년	증감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11.35 (53.52)	11.11 (51.94)	▲ .24	7.60 (35.92)	7.57 (34.58)	▼ .03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여부1	2022년 또는 2023년 지원 (n=118)	26.12 (59.97)	▲ 1.73	16.69 (38.10)	18.44 (42.19)	▲ 1.73
	미지원 (n=888)	9.70 (52.53)	▼ .58	6.59 (35.55)	6.28 (33.36)	▼ .31
t	-2.906**	-3.513***		-2.661*	-3.424***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여부2	2022년, 2023년 연속 지원 (n=67)	33.37 (74.20)	▲ 3.36	20.77 (46.58)	24.00 (51.52)	▲ 3.22
	2023년 신규 지원 (n=51)	16.29 (30.08)	▲ .61	11.14 (21.25)	11.58 (25.45)	▲ .43
	미지원 (n=888)	9.7 (52.53)	▼ .58	6.59 (35.55)	6.28 (33.35)	▼ .30
F	5.473**	8.108***		4.419*	7.575***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사회적 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대표자의 인식 차이로, 독립표본 티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 III-19〉 참조). 먼저 2022년 혹은 2023년에 신규로 인력을 지원받은 118개소와 지원받지 않은 888개소를 비교한 결과, 지원받

은 기업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다음으로 지원받은 기업을 2022년, 2023년 연속 지원 집단과 2023년 신규 지원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 간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속지원 집단의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규지원 집단, 그리고 미지원 집단 순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지원이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나아가 실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성과를 가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Ⅲ-19〉 자활기업전문인력 지원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사회적 성과 비교

(단위:명)

구분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 ¹⁾	
	2023년	2024년
전체	3.18 (.66)	3.45 (.68)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여부1		
2022년 또는 2023년 지원 (118개소)	3.66 (.58)	3.75 (.57)
미지원	3.11 (.64)	3.41 (.68)
t	-7.363***	-4.332***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여부2		
2022년, 2023년 연속 지원 (67개소)	3.76 (.63)	3.77 (.58)
2023년 신규 지원 (51개소)	3.53 (.53)	3.72 (.58)
미지원	3.11 (.64)	3.41 (.68)
F	28.648***	9.445***

주 1)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는 조직 미션 및 가치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와의 소통, 선한 영향력 실현 및 확산,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혁신활동 강화, 공유가치 창출 활동 강화, 전문역량강화, 관료적 관행 극복, 이익분배의 윤리성·투명성 강화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만점임

*p < .05, **p < .01, ***p < .001

나아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법인격의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기업의 법인화, 혹은 법인격의 자활기업 창업을 독려하는 부가적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발견된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자활기업의 법인화, 혹은 법인격의 자활기업 창업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아래 〈표 Ⅲ-20〉에서 볼 수 있듯이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시작된 2021년에 비해 2022년, 2023년에 법인형 자활기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총 997개의 자활기업 중 법인형 자활기업의 수는 320개였는데 비

해, 2022년에는 15개 증가한 335개이며, 2023년에는 2021년에 대비 47개소 증가, 2022년 대비 32개소 증가한 367개다. 전체 자활기업 중 법인화 자활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1년 32.1%에서 2022년 33.9%, 2023년 3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만의 효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한 자활기업의 법인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II-20〉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 전후 법인격 자활기업 변화

(단위: 개소, %)

구분	총 자활기업수	유형별 자활기업수와 전체 기업수 대비 비중(%)			법인기업 전년대비증가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2021	997	320 (32.1%)	171(17.2%)	506 (50.7%)	
2022	987	335 (33.9%)	189 (19.1%)	463 (46.9%)	15개소 증가
2023	1073	367 (34.2%)	201 (18.7%)	505 (47.1%)	32개소 증가

*p < .05, **p < .01, ***p < .001

주1) 2021년 법인은 주식회사(249), 유한회사(68), 영농조합(1), 비영리(1), 합병(1)의 합임. 협동조합은 일반(135)과 사회적(36)의 합임

2) 2022년 법인은 주식회사(258), 유한회사(69), 영농조합(2), 비영리(3), 사단(1), 합병(2)의 합이며, 협동조합은 일반(142)과 사회적(47)의 합임

3) 2023년 법인은 주식회사(284), 유한회사(74), 영농조합(2), 비영리(1), 사단(1), 합병(2)의 합이며, 협동조합은 일반(156)과 사회적(50)의 합임

3. 시설환경 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1) 시설환경 지원 사업의 구성, 사업 수행 및 자금 활용

(1) 시설환경 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본 연구는 시설환경 지원사업을 아래 <표 Ⅲ-2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환경개선, 센터시설 개선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3개 사업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업장 환경개선은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단 사업장 확대, 신규 사업장 지원 등 자활사업장 공간과 제반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지원받고 있다.

센터시설 개선 지원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취약계층 이용 편의향상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23년 광역자활센터까지 포함하여 센터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축 사업으로 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자활기업,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지자체 자활사업 활성화, 생산성,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둔다. 그러나 지자체 매칭비를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선정과 사업 수행의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각 사업의 사업 주체와 사업 내용은 아래 <표 Ⅲ-21>과 같다.

〈표 III-21〉 시설환경 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사업수행여부			지원대상	기금활용주체	사업내용
	2021	2022	2023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	✓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사업장 확대, 신규 사업장 지원 등 자활사업장 공간과 제반시설 구축
자활센터 시설개선 지원 ¹⁾		✓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축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	✓	자활기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사업장 통합운영

주 1. 2022년 취약계층 이용 편의 향상 지원 사업에서 2023년 센터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2022년에는 지역자활센터 대상 사업이었으나 2023년에는 광역자활센터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함

(2) 시설환경 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및 사업 성과

먼저 시설환경 지원 사업의 기금 수혜 현황과 본 연구에서 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위한 지표는 다음 〈표 III-22〉와 같다.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작업 공간 확보, 근로 환경 개선, 사업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간·시설 확보 및 환경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2022년에는 3,361,527 만 원, 2023년에는 4,293,357 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89.1%, 71.8%를 집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매출액 등 경제성 성과, 고용성과, 근로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 성과를 효과성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센터시설 개선 지원의 경우, 2022년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시작 이후 2023년 광역자활센터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센터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안전성 제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사업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예산으로 2022년 112,894 만 원, 2023년 2,457,629 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각각 18.7%, 99.55% 집행되었다. 2022년의 경우, 공모 시기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센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이용 편의성, 서비스 만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자료의 한계로 사업의 경제적 성과, 고용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000,760 만 원, 2023년에는 3,006,066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각각 99.8%, 60.4%의 집행률을 보인다. 본 사업은 지자체에 자활기업, 사업단 등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자활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수혜 여부, 경제적 성과, 고용 성과와 같은 사업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표 Ⅲ-22〉 시설환경 지원사업의 자금 수혜 및 사업성과

사업	사업 목표	자금수혜(단위: 만원) 예산(집행율)		성과지표
		2022	2023	
사업장 환경개선	작업 공간 확보, 근로 환경 개선, 사업 효과성 향상	3,399,159 (89.1)	4,293,357 (71.8%)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성과 -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센터시설 개선 지원	시설 안전성 제고,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사업 효과성 향상	1,128,937 (18.7) ¹⁾	2,462,229 (83.2%)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성과 -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시너지 및 효율성, 지역 자활사업 간 협력, 자활기업 활성화	2,000,760 (99.8)	3,006,066 (60.4%)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성과 -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주1. 공모 시기 지연, 짧은 사업 기간으로 집행률 저조

2)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사업별 효과성 분석

(1)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3,812,000 만 원, 5,982,500 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3,399,159 만 원(89.1%) 4,293,357 만 원(71.8%)이 집행되었다.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자활센터를 지원하여 해당 센터와 관련된 자활기업, 사업단 환경이 개선되었다. 2022년에는 98개 지역자활센터, 117개 사업단이 지원받았으며, 2023년에는 142개 센터,

167개 사업단이 지원받았다. 지원 내용은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 장비구매지원 등이다. 2024년에는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과 ‘센터시설 개선 사업’이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고 광역으로 이관되었다. 두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예산은 7,158,000 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 6,997,940 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대부분(98%)이 집행되었다.

2022년은 50개 자활센터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109개 센터, 117개 사업단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41개 센터 168개 사업단을 지원하였다. 2024년에는 상반기에 책정된 예산을 대부분 사용하며 42개 센터 178개 사업단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본 사업이 이러한 산출 효과에서 나아가 공간확보, 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구매를 통해 결국 경제적 성과, 고용성과, 근로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고용 인원의 증가와 같은 고용성과, 사회적 개선 지표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아래 <표 III-23> 참조).

<표 III-23>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	사업 목표	수행 년도	투입(단위:만원)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사업장 환경개선	작업장 공간 부족 개선 노후시설 개선 사업 효과성 향상	2022	3,361,527 (89.1)	·109개 지역자활센터, 117개 사업단 지원 - 신규사업장 마련 임대보증금 지원 7개 센터 - 사업장 시설개보수 지원 86개 센터 - 장비구매 지원 80개 센터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성과 -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2023	4,293,357 (71.8%)	·141개 지역자활센터, 168개 사업단 지원 (목표 대비 142% 지원)	

먼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아래 <표 III-24> 참조). 매출액의 경우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의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원받은 673개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314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에 비해 지원받지 않은 매출액이 2022년 및 2023년 모두 더 높았으며, 2022년의 매출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환경개선 사업지원을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567.5 만 원 상승한 것과 달리, 미지원 기업은 매출액이 15,505.1 만 원 감소함. 이는 환경개선 지원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21년부터 3개년간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97개 자활기업, 2개년 간 연속 지원받은 234개 기업, 1개년도 지원받은 344개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314개 기업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년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승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지원 기업 집단은 매출액 하락 정도가 컸다(-15,505.1 만 원).

즉 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의 절대량이 크지는 않으나 미지원 기업 집단 대비 매출액이 상승하고 그러한 상승 폭이 큰 경향을 보여 환경개선 지원은 자활기업의 매출액, 즉 규모와 생산성 확대가능성을 높이는 경제적 성과를 가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III-24〉 자활기업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단위: 만원)

구분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26,593.8 (138,695.9)	22,724.9 (71,116.7)	▼ 3,868.8	
자활기업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여부1	2021,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673)	18,707.9 (49,066.8)	20,275.4 (55,531.6)	▲ 1,567.5
	미지원 (n=314)	43,495.8 (234,539.8)	27,990.6 (96,350.2)	▼ 15,505.1
	t	1.854**	1.321	
자활기업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여부2	3개년도 연속 지원 (n=97)	24,316.8 (68,815.6)	27,790.1 (76,732.8)	▲ 3,473.2
	2개년도 연속 지원 (n=234)	23,076.1 (61,921.7)	22,766.9 (67,025.8)	▼ 309.1
	1개년도 지원 (n=344)	14,246.4 (28,036.3)	16,461.5 (36,402.9)	▲ 2,215.1
	미지원 (n=314)	43,495.7 (23,4539.8)	27,990.6 (96,350.2)	▼ 15,505.1
	F	2.650**	1.63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고용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총고용인원 및 취약계층(수급, 차상위, 기타취약계층의 합) 고용인원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 III-25〉 참조). 먼저 총고용 인원과 취약계층고용인원 모두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의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받은 673개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314개 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지원 집단의 총고용인원 및 취약계층고용인원 모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배 이상 많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거나 작은 기업의 영향력이 이러한 경향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총고용인원과 취약계층고용 인원의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66, .59명으로 적지만 상승한 반

면, 미지원 기업은 총고용 2.16명, 취약계층고용 1.3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개선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21년부터 3개년간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97개 자활기업, 2개년 간 연속 지원받은 234개 기업, 1개년도 지원받은 344개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314개 기업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2개년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 집단의 고용 증가가 가장 높았으며, 미지원 기업 집단은 고용이 감소하여 환경개선 지원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을 촉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성과를 가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Ⅲ-25〉 자활기업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명)

구분	총고용 인원			취약계층고용 인원			
	2022년	2023년	증감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11.35 (53.52)	11.11 (51.94)	▼ .24	7.60 (35.92)	7.57 (34.58)	▼ .03	
자활기업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여부1	2021,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673)	29.88 (1.15)	32.95 (1.27)	▲ .66	19.40 (.75)	21.27 (.81)	▲ .59
	미지원 (n=314)	84.03 (4.74)	78.47 (4.43)	▼ 2.16	56.91 (3.21)	52.84 (2.98)	▼ 1.35
t	1.664+	1.150		1.567	1.040		
자활기업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여부2	3개 년도 연속 지원 (n=97)	9.38 (32.35)	9.78 (35.67)	▲ .40	6.66 (20.99)	7.03 (24.71)	▲ .37
	2개 년도 연속 지원 (n=234)	12.24 (41.88)	13.08 (46.02)	▲ .84	8.14 (26.84)	8.98 (28.72)	▲ .85
	1개 년도 지원 (n=344)	6.33 (16.74)	6.84 (17.98)	▲ .52	4.33 (11.61)	4.76 (12.28)	▲ .43
	미지원 (n=314)	16.89 (84.03)	14.72 (78.47)	▼ 2.16	11.12 (56.91)	9.77 (52.84)	▼ 1.36
F	2.213+	1.415		2.009	1.318		

*p < .05, **p < .01, ***p < .001

(2) 센터시설 개선 사업의 효과성 분석

센터시설 개선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6,263,000 만 원, 2,958,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1,128,937 만 원(18.7%), 2,462,229 만 원(83.2)%이 집행되었다. 센터시설 개선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시설개선 사업으로 2022년 시작되었으나 2023년 광역자활센터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022년에는 35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원받았으며, 2023년에는 61개 지역자활센터, 9개 광역자활센터 등 총 70개 센터가 지원받았다. 2024년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과 ‘센터시설 개선 사업’이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으로 통합되어 광역으로 이관되면서, 7,158,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상반기에 센터 42개, 사업단 178개를 지원하였으며 예산의 대부분인 6,997,940 만 원(98%)이 집행되었다.

본 연구는 센터시설환경 개선은 센터 종사자와 이용자의 이용 편의, 이용만족도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고용 인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성과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아래 <표 III-26> 참조)

<표 III-26> 자활기업의 센터시설 개선 사업 효과성 분석

사업	사업 목표	수행 년도	투입(단위:만원)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센터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이용 편의 향상 지원)	작업장 공간 부족 개선 노후시설 개선 사업 효과성 향상	2022	112,894 (18.71)	· 지역자활센터 35개소 지원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 성과 - 총 참여자수, 취약 계층참여자수
		2023	2,457,629 (99.55%)	· 총 70개 센터 지원 - 9개 광역자활센터 - 61개 지역자활센터 (목표 대비 100% 지원)	

먼저 시설환경 개선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 III-27> 참조). 매출액의 경우,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 2022년 혹은 2023년에 지원받은 501개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654개 기업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의 절대적인 차이는 지원받은 기업에 비해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더 높았다. 이는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규모와 환경이 더 열악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13.5 만 원 상승한 것과 달리, 미지원 기업의 매출액은 6,530.8 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개선 지원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Ⅲ-27〉 자활기업의 센터시설 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독립표본 티검정)

(단위: 만원)

구분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26,593.8 (138,695.9)	22,724.9 (71,116.7)	▼ 3868.8	
자활기업 센터시설 개선 지원여부	2022, 2023년 중 지원 (n=501) 미지원 (n=654) t	18,242.4 (42,683.5) 32,602.7 (178,059.5) -1.859+	18,356.0 (42,971.5) 26,071.8 (86,598.6) -1.834+	▲ 113.5 ▼ 6,530.8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센터시설 개선 사업의 고용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총고용인원 및 취약계층(수급, 차상위, 기타취약계층의 합) 고용인원의 차이를 독립표본 티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아래 〈표 Ⅲ-28〉 참조). 먼저, 총고용인원과 취약계층고용인원 모두 사업장 센터시설 개선 사업에 의해 2022년 혹은 2023년에 지원을 받은 501개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654개 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지원 집단의 총고용인원 및 취약계층고용인원이 지원받은 기업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센터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총고용인원과 취약계층고용 인원의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각각 1.21, .96명 상승한 반면, 미지원 기업은 총고용 2.26명, 취약계층고용 1.4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센터시설 개선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21년부터 3개년간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97개 자활기업, 2개년 간 연속 지원받은 234개 기업, 1개년도 지원받은 344개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314개 기업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2개년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 집단의 고용 증가가 가장 높았으며, 미지원 기업 집단은 고용이 감소하여 환경개선 지원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을 촉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성과를 가졌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표 III-28〉 자활기업의 센터시설 개선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독립표본 티검정)

(단위:명)

구분	총고용 인원			취약계층고용 인원			
	2022년	2023년	증감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11.35 (53.52)	11.11 (51.94)	▼ .24	7.60 (35.92)	7.57 (34.58)	▼ .03	
자활기업 센터시설 개선 지원여부	2022, 2023년 중 지원 (n=501)	9.91 (34.17)	11.12 (38.14)	▲ 1.21	6.50 (23.05)	7.46 (24.81)	▲ .96
	미지원 (n=654)	13.34 (72.28)	11.09 (65.78)	▼ 2.26	9.13 (48.43)	7.72 (44.23)	▼ 1.41
t		.996	-.010		1.135	.121	

*p < .05, **p < .01, ***p < .001

(3)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실적 및 성과 분석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2,005,000 만 원, 4,980,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2,000,760 만 원(99.8%), 3,006,066 만 원(60.4%)이 집행되었다.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활 관련 기업, 사업장, 사업단이 함께 시너지를 가지며 협력하도록 공간 및 시설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시작되었으나 지자체 매칭비가 사업비 수혜 조건으로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벽이 되기도 한다.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교육인프라 확보 등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간 시너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년에는 4개 지자체를, 2023년에는 6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활기업 모두 수혜받았음을 의미한다.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2023년에 비해 약 70%로 대폭 증가한 8,456,992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상반기에만 7개 지자체를 지원하며 예산의 64%인 5,442,000원 정도를 집행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지원 지자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협력과 시너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고용인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성과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아래 <표 Ⅲ-29> 참조).

<표 Ⅲ-29>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실적 및 성과 분석

사업	사업 목표	수행 년도	투입(단위:만원)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자활기업 활성화, 자활사업 간 협업 통한 시너지 향상	2022	2,000,760 (99.8)	4개 지자체 지원 - 신축 3개소(성주, 예산, 정선) - 리모델링 1개(청주)	해당지역 자활기업의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성과 -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 정책수혜여부 등 협업
		2023	3,006,066 (60.4%)	6개 지자체 지원	

먼저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의 차이를 독립표본 티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 Ⅲ-30> 참조). 매출액의 경우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의해 2022년 혹은 2023년에 지원받은 26개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1,129개 기업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의 절대적인 차이는 지원받은 기업에 비해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더 높았다. 이는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규모와 환경이 더 열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 4,888.5만원 상승한 반면, 미지원 기업의 매출액은 4,110.8만원 감소함. 이는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II-30〉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독립표본 t검정)

(단위: 만원)

구분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26,593.8 (138,695.9)	22,724.9 (71,116.7)	▼ 3868.8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지원여부	2022,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6)	101,22.5 (8,806.9)	150,10.9 (15,770.4)	▲ 4,888.5
	미지원 (n=1129)	269,86.8 (140,312.4)	228,76.0 (71,770.1)	▼ 4,110.8
	t	-576	-477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고용성과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총고용인원 및 취약계층(수급, 차상위, 기타취약계층의 합) 고용인원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 III-31〉 참조). 먼저 2022년 혹은 2023년에 지원을 받은 26개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1,129개 기업의 총고용인원과 취약계층고용인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원받지 않은 집단의 총고용인원 및 취약계층고용인원이 지원받은 기업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이 위치한 지자체가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총고용인원은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1.30명 증가한 반면, 미지원 기업의 경우 30명 감소했다. 취약계층고용인원의 경우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1.50명 증가한 반면, 미지원 기업에서는 .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Ⅲ-31〉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독립표본 티검정)

(단위:명)

구분	총고용 인원			취약계층고용 인원			
	2022년	2023년	증감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	11.35 (53.52)	11.11 (51.94)	▼ .24	7.60 (35.92)	7.57 (34.58)	▼ .03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지원여부	2022,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6)	4.17 (2.52)	5.47 (6.02)	▲ 1.30	2.61 (2.08)	4.11 (5.12)	▲ 1.50
	미지원 (n=1129)	11.52 (54.14)	11.22 (52.43)	▼ .30	7.72 (36.34)	7.64 (34.91)	▼ .08
	t	- .650	- .477		- .674	- .441	

*p < .05, **p < .01, ***p < .001

4. 사업지원 사업 실적 및 주요성과

1) 사업지원 사업의 구성, 사업 수행 및 자금 활용

중앙자활자금을 활용한 사업지원 사업으로는 연구개발, 판로지원, 사업활성화 지원, 경영지원이 있다(〈표 III-32〉 참조). 먼저,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사업'이 있는데, 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분석 및 참여자 변화 파악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이하 분석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판로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은 자활생산물에 대한 품질 개선 지원 및 우수자활상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를 사업 목적으로, 2023년 기준 광역센터 컨설팅 지원 및 경영관리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하였다.

사업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 지원사업',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우수자활기업 선정' 등 총 5개 사업이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은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및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홍보 자료 게시 및 대출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자활기업의 신규사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선정된 뒤 지원비를 교부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은 자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종 및 이종간 협업을 지원하고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협업을 지원한다.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은 우수자활기업에 대한 포상금을 배부해 자활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경영관리지원사업'은 자활기업의 성장지원 강화를 통한 자활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컨설턴트 인력 풀을 공유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표 Ⅲ-32〉 사업지원 사업의 구성 및 사업 수행 현황

		사업수행여부 (자활기업 수)			지원대상	기금활용 주체	사업 내용
		2021	2022	2023			
연구개발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업 성과 분석 및 참여자 변화 파악
판로지원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	✓	✓	사업단/자활기업	사업단/자활기업	광역센터 컨설팅 지원 및 경영관리 매뉴얼 배포
사업활성화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	✓	자활기업	자활기업	온라인 홍보자료 게시 및 대출현황 모니터링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	자활기업	자활기업	신규사업 추진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지역특화 지원사업	✓	✓	✓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특화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비 교부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	✓	✓	사업단/자활기업	자활기업	동종, 이종간 협업지원, 컨소시엄 선정
	우수자활기업 선정	✓	✓	✓	자활기업	자활기업	우수자활기업에 대한 포상금 교부
경영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	✓	✓	✓	사업단/자활기업	사업단/자활기업	컨설턴트 인력 풀 공유 및 컨설팅 지원

※ 자활기업 수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당해연도의 자활기업 수를 의미



아래 <표 III-33>에서 예산 및 집행률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로지원에 해당하는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의 경우 2022년 7,796 만 원이었던 것이 2023년 1억 1,018 만 원으로 3,222 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32~33%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보인다.

사업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컸던 사업이자,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 증대가 가장 컸던 사업은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2023년 47억 5,147 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예산은 2022년 대비 41억 7,060 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지역특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5억 6,529 만 원)에 비해 2023년 14억 5,759 만 원으로 8억 9,230 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다. 예산 집행률이 가장 큰 사업은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과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 모두 93% 이상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예산 사용이 가장 적으며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으로, 2022년 30만 원에서 2023년 0원으로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지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1억 1,841 만 원인데 비해 2023년 4억 7,181 만 원으로 예산이 3억 5,340 만 원 증가하였다.

사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경제적 성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 성과로 총 고용 인원과 취약계층 고용 인원, 기업유지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정도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정도는 전년 대비 당해년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 변화를 매우 감소(1)부터 매우 증가(5)의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33〉 사업지원 사업의 자금 수혜 및 사업성과

(단위 : 만원, %)

사업	사업 목적	자금 수혜 예산(집행율)			효과성 평가 지표
		2022	2023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	
판로지원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7,796 (32.1)	11,018 (33.3)	▲ 3,222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30 (0.0)	0 (0.0)	▼ 30	
사업활성화 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8,087 (11.6)	475,147 (85.5)	▲ 417,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이익 • 고용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고용 인원 • 법인사업자 증가 •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정도 -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지역특화 지원사업	56,529 (79.3)	145,759 (64.6)	▲ 89,230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68,495 (93.1)	113,716 (94.6)	▲ 45,221	
	우수자활기업 선정	20,953 (99.8)	27,061 (96.1)	▲ 6,108	
경영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	11,841 (78.9)	47,181 (84.3)	▲ 35,340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0차 중앙자산키움펀드 관리위원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3차 중앙자산키움펀드 관리위원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4)
 ※ 연구개발(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본 분석에서 제외함(이하 표에서도 연구개발 파트 삭제)

2) 사업지원 사업의 사업별 실적 및 효과성 평가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의 산출을 보면, 2022년도엔 전년 대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23년에는 우수자활생산품을 선정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수행하였다. 사업활성화 지원 사업 가운데 비용 지출이 가장 컸던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 지원비가 약 8배 증가하여 사업비 지원 규모가 커졌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예산 집행률은 그리 높진 않았으나, 전년 대비 사업비 지원 규모와 사업지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은 컨소시엄 지원 개소가 늘었으며,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은 목표와 근접한 수준으로 우수자활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지원관리사업'은 목표 대비 지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성 평가 지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 성과로 총 고용 인원과 취약계층 고용 인원, 기업유지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정도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조사하였으며, 모든 분석 기준은 자활기업이다.

〈표 Ⅲ-34〉 사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단위 : 만원, %)

사업	투입 예산(집행율)		산출		성과	
	2022	2023	2022	2023		
판로지원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7,796 (32.1)	11,018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60% 지원확대 - 신제품 디자인지원으로 쇼핑몰 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자활생산물 33개 제품 선정 - 우수자활생산물 선정 제품 중 13개 제품 후속지원 진행 • 23개 제품 전문가 멘토링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성과 - 매출액 • 고용 성과 - 총 고용 인원, 취약계층 고용 인원 • 법인사업자 증가 •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정도 -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30 (0.0)	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현행화 1종 제작 - 보증료 지원 한도 초과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자료 기관 홈페이지 게시 • 대출 현황 등 정기 모니터링 실시 	
사업활성화 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8,087 (11.6)	475,147 (8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업 예산집행율 92% - 12개 시도의 자활기업 사업개발 선정으로 향후 사업 확산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196% 지원 - 1차 110개소, 2차 86개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증가 •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정도 -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지역특화 지원사업	56,529 (79.3)	145,759 (6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체계 다각화 계획 대비 100% 실행 - 선정대상의 매출 17% 및 고용 1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사업 지원 2개 증가 - 1차 17개(신규 10개/후속 7개), 2차 4개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68,495 (93.1)	113,716 (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4가지 유형 100% 모집 및 선정 - 컨소시엄 기업 30% 매출 증대 효과 - 성과발표회 및 온라인 홍보 진행으로 성과물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컨소시엄 지원 2개소 확대 - 컨소시엄 13개소 지원 (계속 지원 6개소 포함) 	
	우수자활기업 선정	20,953 (99.8)	27,061 (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100% 선정 - 선정된 기업 홍보 연계 및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소 선정 - 선정결과에 따라 포상금 차등지급 	
경영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	11,841 (78.9)	47,181 (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103% 지원 달성 - 컨설팅 지원기업 2개 우수자활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128% 지원 - 205건 지원(법인전환 분야 28건 포함) 	

(1)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의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 성과를 비교한 결과, 2021년 이후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 증가한 반면, 지원받지 못한 자활기업은 고용인원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2022년 10개, 2023년 8개로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표 III-35〉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0, 8)	4.50 (2.80)	6.00 (3.93)	▲ 1.50	3.40 (1.90)	4.38 (2.33)	▲ 0.98
미지원 (n=977, 981)	11.42 (53.79)	11.15 (52.15)	▼ 0.27	7.64 (36.10)	7.60 (34.72)	▼ 0.04
t	-0.407	-0.279		-0.372	-0.262	

* $p < .05$, ** $p < .01$, *** $p < .001$

주: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은 2년 이상 연속 지원받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받은 경우와 미지원 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함(이하 표 동일)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여부에 따라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한 해 이상 지원 받은 자활기업의 매출액은 약 5,914만 원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약 3,988만 원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영업이익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감소하나,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약 44만 원 감소한 데 반해 미지원 자활기업은 약 457만원 감소하여 10배 이상의 감소액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자활기업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Ⅲ-36〉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0, 8)	7506.3 (7983.3)	13419.9 (15554.4)	▲ 5913.6	-895.4 (1780.2)	-939.8 (4055.1)	▼ 44.4
미지원 (n=977, 981)	26789.1 (139888.9)	22800.8 (71389.3)	▼ 3988.3	-38.7 (6648.2)	-495.9 (7392.8)	▼ 457.2
t	-437	-371		-407	-170	

*p < .05, **p < .01, ***p < .001

사업 시행 전후 기업의 유형별 변화를 보면,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법인사업자 비율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의 법인사업자 비율은 1.7%p 증가하였다.

〈표 Ⅲ-37〉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0, 8)	5 (50.0)	4 (50.0)	3 (30.0)	2 (25.0)	2 (20.0)	2 (25.0)	▼ 1 (비율 동일)
미지원 (n=977, 981)	330 (33.8)	348 (35.5)	186 (19.0)	188 (19.2)	461 (47.2)	445 (45.4)	▲ 18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은 당기순이익이 2023년과 2024년 조사에서 2.67점으로 유지에 가까운 점수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원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 인식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 성과 인식의 경우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간 감소(0.42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2023년과 2024년의 값이 동일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 성과 인식은 당기순이익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6, 7)	2.67 (0.82)	2.67 (0.82)	동일	3.71 (0.49)	3.29 (1.11)	▼ 0.42
미지원 (n=535, 638)	2.75 (0.95)	2.72 (0.96)	▼ 0.03	2.93 (0.91)	2.93 (0.93)	동일 (비율 증가)
t	-0.217	-0.144		2.270*	1.020	

* $p < .05$, ** $p < .01$, *** $p < .001$

주: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2) 사업활성화 지원

①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을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 2022년 대비 203년에 증가하였으나,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여부를 미지원과 1개년도 지원, 2개년도 연속 지원, 3개년도 연속 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

〈표 Ⅲ-39〉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49)	20.84 (46.78)	23.00 (51.52)	▲ 2.16	13.47 (32.49)	15.16 (35.47)	▲ 1.69
	미지원 (n=938, 940)	10.85 (53.83)	10.49 (51.91)	▼ 0.36	7.29 (36.08)	7.18 (34.51)	▼ 0.11
	t	1.273	1.645		1.173	1.577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 (n=40, 41)	24.13 (51.26)	24.59 (55.28)	▲ 0.46	15.58 (35.67)	15.78 (37.60)	▲ 0.20
	2개 년도 연속 지원 (n=1, 0)	3	.		3	.	
	1개 년도 지원 (n=8)	6.63 (5.34)	14.88 (25.53)	▲ 8.25	4.25 (2.92)	12.00 (23.16)	▲ 7.75
	미지원 (n=938, 940)	10.85 (53.83)	10.49 (51.91)	▼ 0.36	7.29 (36.08)	7.18 (34.51)	▼ 0.11
	F	.815	.708		1.470	1.283	

*p < .05, **p < .01, ***p < .001

주: 지원여부2에서 2개년도 연속 지원 값이 1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사후검정은 수행하지 못함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대비 2023년은 모두 매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미지원 자활기업보다 매출액 감소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원 자활기업과 3개년도 연속 지원 자활기업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1년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평균 영업이익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해라도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받지 못한 자활기업은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50개소가 되지 않아 적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표 III-40〉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49)	46308.8 (64875.6)	42979.3 (59405.8)	▼ 3329.5	-2042.4 (7129.8)	-331.7 (5825.1)	▲ 1710.7
	미지원 (n=938, 940)	25563.9 (141440.8)	21669.1 (71544.3)	▼ 3894.8	-56.7 (6576.8)	-508.2 (7445.0)	▼ 451.5
	t	1.021	2.048*		-2.017*	.163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 (n=40, 41)	51006.8 (70025.4)	44243.6 (62047.2)	▼ 6763.2	-2574.9 (5388.4)	-240.5 (2875.7)	▲ 2334.4
	2개 년도 연속 지원 (n=1, 0)	1321.7
	1개 년도 지원 (n=8)	28442.3 (27582.0)	36500.1 (46289.7)	▲ 8057.8	364.5 (13340.9)	-240.5 (2875.7)	▼ 605.0
	미지원 (n=938, 940)	25563.9 (141440.8)	21669.1 (71544.3)	▼ 3894.8	56.7 (6576.8)	-499.4 (7370.8)	▼ 556.1
	F	.441	2.135		2.040	.033	

*p < .05, **p < .01, ***p < .001

주: 지원여부2에서 2개년도 연속 지원 값이 1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사후검정은 수행하지 못함

사업 시행 전후 법인사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 비율 및 개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관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7개소가 증가하고 비율 역시 1.8%p 증가하였다.

〈표 Ⅲ-41〉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총 자활기업수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49)	29 (59.2)	29 (59.2)	8 (16.3)	8 (16.3)	12 (24.5)	12 (24.5)	동일 (비율 동일)
	미지원 (n=938, 940)	306 (32.6)	323 (34.4)	181 (19.3)	182 (19.4)	451 (48.1)	435 (46.3)	▲ 17
	3개 년도 연속 지원 (n=40, 41)	24 (60.0)	24 (58.5)	8 (20.0)	8 (19.5)	8 (20.0)	9 (22.0)	동일 (비율 감소)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동일 (비율 동일)
	1개 년도 지원 (n=8)	5 (62.5)	5 (62.5)	0 (0.0)	0 (0.0)	3 (37.5)	3 (37.5)	동일 (비율 동일)
	미지원 (n=938, 940)	306 (32.6)	323 (34.4)	181 (19.3)	182 (19.4)	451 (48.1)	435 (46.3)	▲ 17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주관적 경제적 성과를 확인한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인식하는 당기순이익 성과는 0.91점 감소하였으며 미지원 자활기업은 0.02점 감소하여 미지원 자활기업의 감소 폭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업이익 성과는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0.08점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0.01점 감소하였다. 아래 제시된 〈표 Ⅲ-42〉의 지원 여부 2를 보면, 당기순이익을 통해 보는 경제적 성과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지원 자활기업의 감소 폭이 가장 적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 인식은 3개년도 연속 지원 자활기업만 0.13점 증가하였으며, 1개년도 연속 지원이나 미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

〈표 III-42〉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n=541)	2024 (n=645)	증감	2023 (n=541)	2024 (n=645)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37, 35)	2.81 (0.97)	2.62 (0.89)	▼ 0.91	3.23 (0.91)	3.31 (0.93)	▲ 0.08
	미지원 (n=504, 610)	2.75 (0.95)	2.73 (0.97)	▼ 0.02	2.92 (0.91)	2.91 (0.92)	▼ 0.01
	t	.400	-.663		1.948	2.530*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 (n=31, 29)	2.71 (0.97)	2.52 (0.89)	▼ 0.19	3.28 (0.96)	3.41 (0.98)	▲ 0.13
	1개 년도 지원 (n=6)	3.33 (0.82)	3.17 (0.75)	▼ 0.16	3.00 (0.63)	2.83 (0.41)	▼ 0.17
	미지원 (n=504, 610)	2.75 (0.95)	2.73 (0.97)	▼ 0.02	2.92 (0.91)	2.91 (0.92)	▼ 0.01
	F	1.164	1.374		2.123	4.188*	

* $p < .05$, ** $p < .01$, *** $p < .001$

주1: 지원여부2에서 2024년 영업이익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미지원과 3개년도 연속 지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임 (미지원 < 3개년도 연속 지원)

주2: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②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원받은 자활기업 수가 100건 이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성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2021년 이후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2022년 대비 2023년 고용인원이 모두 감소한다. 특히 아래 ‘지원 여부 2’를 보면 미지원 자활기업만 고용인원이 감소하였으며, 1개년도 지원이나 2개년도 연속 지원 자활기업은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43〉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94, 198)	14.79 (37.93)	16.28 (41.64)	▲ 1.49	9.08 (22.54)	10.71 (27.10)	▲ 1.63
	미지원 (n=793, 791)	10.51 (56.67)	9.81 (54.16)	▼ 0.70	7.24 (38.50)	6.79 (36.18)	▼ 0.45
	t	.999	1.567		.639	1.427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10)	15.60 (28.04)	16.40 (28.18)	▲ 0.80	11.90 (21.63)	12.30 (22.50)	▲ 0.40
	1개 년도 지원 (n=184, 188)	14.74 (38.46)	16.27 (42.29)	▲ 1.53	8.92 (22.64)	10.62 (27.37)	▲ 1.70
	미지원 (n=793, 791)	10.51 (56.67)	9.81 (54.16)	▼ 0.70	7.24 (38.50)	6.79 (36.18)	▼ 0.45
	F	.499	1.227		.236	1.029	

*p < .05, **p < .01, ***p < .001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2021년 이후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약 1,621 만 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미지원 기관은 약 5,279 만 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2023년의 매출액은 지원 여부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의 ‘지원 여부 2’를 보면 1개년도 지원과 2개년도 연속 지원 자활기업은 매출액이 모두 증가한다. 2023년 매출액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미지원 자활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9,765 만 원인 데 반해, 2개년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약 7억 6,686 만 원으로 약 5억 6,920 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 평균 영업이익은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미지원 자활기업 모두 감소하였으며 해당 감소 폭은 지원받은 기관이 더 컸다. 특히 2개년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약 2,397 만 원 감소하였다.

〈표 III-44〉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94, 198)	32927.4 (66983.4)	34547.9 (66546.9)	▲ 1620.5	-702.6 (7911.1)	-1191.4 (7891.5)	▼ 488.8
	미지원 (n=793, 791)	25044.3 (151138.7)	19765.4 (71951.8)	▼ 5278.9	112.8 (6255.5)	-326.2 (7229.5)	▼ 439.0
	t	.709	2.624**		-1.337	-1.478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10)	76414.6 (154578.9)	76685.8 (157876.1)	▲ 271.2	-3309.8 (7617.4)	-913.2 (3958.3)	▲ 2396.6
	1개 년도 지원 (n=184, 188)	30563.9 (58718.4)	32306.5 (58014.7)	▲ 1742.6	-560.9 (7922.1)	-1206.2 (8052.8)	▼ 645.3
	미지원 (n=793, 791)	25044.3 (151138.7)	19765.4 (71951.8)	▼ 5278.9	112.8 (6255.5)	-326.2 (7229.5)	▼ 439.0
	F	.770	5.316**		2.006	1.099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원여부2에서 2023년 매출액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미지원과 2개년도 연속 지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임 (미지원 < 2개년도 연속 지원)

사업 시행 전후 법인사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 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미지원된 자활기업은 12개소가 증가하였다. 특히 1개년도 지원받은 자활기업에서 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2개년도 연속으로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법인사업자는 수와 비율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다.

〈표 Ⅲ-45〉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총 자활기업수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여부 1 (n=194, 198)	97 (50.0)	102 (51.5)	55 (28.4)	55 (27.8)	42 (21.6)	41 (20.7)	▲ 5
미지원 (n=793, 791)	238 (30.0)	250 (31.6)	134 (16.9)	135 (17.1)	421 (53.1)	406 (51.3)	▲ 12
2개 년도 연속 지원 (n=10)	5 (50.0)	5 (50.0)	4 (40.0)	4 (40.0)	1 (10.0)	1 (10.0)	동일 (비율 동일)
지원 여부 2 1개 년도 지원 (n=184, 188)	92 (50.0)	97 (51.6)	51 (27.7)	51 (27.1)	41 (22.3)	40 (21.3)	▲ 5
미지원 (n=793, 791)	238 (30.0)	250 (31.6)	134 (16.9)	135 (17.1)	421 (53.1)	406 (51.3)	▲ 12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한 해라도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인식은 작년 대비 유지 정도 수준으로 그 값이 동일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작년보다 감소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약간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년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약간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 경제적 성과 인식은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증가하였다고 본 반면, 미지원된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 인식이 높아진 경우는 2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으로 0.5점 증가하였다.

〈표 III-46〉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56)	2.84 (0.97)	2.84 (0.96)	동일 (비율 감소)	3.14 (0.96)	3.15 (0.98)	▲ 0.01
	미지원 (n=385)	2.71 (0.94)	2.68 (0.96)	▼ 0.03	2.87 (0.89)	2.86 (0.90)	▼ 0.01
	t	1.393	1.807		3.133**	3.287**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8)	2.63 (0.92)	2.50 (0.93)	▼ 0.13	3.17 (1.17)	3.67 (0.52)	▲ 0.50
	1개 년도 지원 (n=148)	2.85 (0.97)	2.86 (0.96)	▲ 0.01	3.14 (0.95)	3.12 (0.99)	▼ 0.02
	미지원 (n=385)	2.71 (0.94)	2.68 (0.96)	▼ 0.03	2.87 (0.89)	2.86 (0.90)	▼ 0.01
	F	1.068	1.987		4.903**	6.413**	

* $p < .05$, ** $p < .01$, *** $p < .001$

주1: 지원여부2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미지원과 1개년도 지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임 (미지원 < 1개년도 지원)

주2: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③ 지역특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지역특화 지원 사업’은 2021년 이후 한 해라도 지원받은 자활기업 수가 총 25개소로 많지 않다. 미지원 자활기업의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모두 증가한 반면,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원 기간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2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해당 사례 수가 2022년에는 7개소, 2023년 8개소로 극히 적은 편이다. 그 밖에 3년 연속 지원, 1년 지원, 미지원된 자활기업은 모두 총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표 Ⅲ-47〉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5)	98.40 (283.94)	67.68 (243.55)	▼ 30.72	65.24 (183.95)	45.50 (163.05)	▼ 19.74
	미지원 (n=933)	7.85 (25.91)	8.25 (28.41)	▲ 0.40	5.30 (16.94)	5.71 (18.45)	▲ 0.41
	t	1.653	1.291		1.629	1.291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a) (n=29, 28)	49.00 (74.52)	49.71 (79.90)	▲ 0.71	31.79 (56.05)	31.61 (56.64)	▼ 0.18
	2개 년도 연속 지원(b) (n=7, 8)	313.29 (473.94)	199.63 (447.62)	▼ 113.66	207.43 (319.31)	135.00 (299.07)	▼ 72.43
	1개 년도 지원(c) (n=18, 20)	14.83 (16.02)	14.90 (14.56)	▲ 0.07	9.94 (14.81)	9.70 (10.18)	▼ 0.24
	미지원(d) (n=933)	7.85 (25.91)	8.25 (28.41)	▲ 0.40	5.30 (16.94)	5.71 (18.45)	▲ 0.41
	F	106.119***	47.032***		101.764***	47.532***	

*p < .05, **p < .01, ***p < .001

주1: 총 고용인원 및 취약계층 고용인원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모두 d, c, a < b 로 나타남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 매출액은 한 해라도 지원받은 자활기업(평균 3,323 만 원 감소)이 미지원된 자활기업(평균 4,070 만 원 감소)보다 매출액 감소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원 기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확인한 결과, 3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만 9억 3,826 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자활기업은 모두 감소하였다. 평균 영업이익은 미지원 자활기업(평균 244만 원)이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평균 583만 원)보다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영업이익은 지원 여부나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3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가장 크다.

〈표 III-48〉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5, 28)	33509.8 (46841.3)	30186.8 (36746.4)	▼ 3323.0	160.0 (4970.9)	-423.4 (3819.4)	▼ 583.4
	미지원 (n=933)	24137.8 (140710.5)	20068.1 (69259.9)	▼ 4069.7	-6.6 (6019.6)	-250.4 (6263.2)	▼ 243.8
	t	.332	.770		.137	-.145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a) (n=18, 20)	9964.6 (103489.3)	103791.0 (104977.1)	▲ 93826.4	-1537.8 (17670.6)	-8874.1 (23334.3)	▼ 7336.3
	2개년도 지원(b) (n=7, 8)	58785.6 (80291.4)	49765.3 (55347.3)	▼ 9020.3	2080.7 (2970.9)	-535.4 (1695.3)	▼ 2616.1
	1개 년도 지원(c) (n=933)	23680.3 (21375.0)	22355.4 (23755.0)	▼ 1324.9	-586.8 (5446.1)	-378.7 (4434.4)	▲ 208.1
	미지원(d) (n=938, 940)	24137.8 (140710.5)	20068.1 (69259.9)	▼ 4069.7	-6.6 (6019.6)	-250.4 (6263.2)	▼ 243.8
	F	2.925* (a<d)	13.436*** (a, c<d)		.783	12.852*** (a, c<d)	

*p < .05, **p < .01, ***p < .001

사업 시행 전후 법인사업자 증감을 확인한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1년 지원받은 기업과 2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이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미지원 자활기업은 15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49〉 지역특화 지원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총 자활기업수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5, 28)	10 (40.0)	12 (42.9)	11 (44.0)	12 (42.9)	4 (16.0)	4 (14.3)	▲ 2
	미지원 (n=933)	320 (34.3)	335 (35.9)	154 (16.5)	155 (16.6)	459 (49.2)	443 (47.5)	▲ 15
	3개 년도 연속 지원 (n=29, 28)	5 (17.2)	5 (17.9)	24 (82.8)	23 (82.1)	0 (0.0)	0 (0.0)	동일 (비율 증가)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7, 8)	2 (28.6)	3 (37.5)	5 (71.4)	5 (62.5)	0 (0.0)	0 (0.0)	▲ 1
	1개 년도 지원 (n=18, 20)	8 (44.4)	9 (45.0)	6 (33.3)	7 (35.0)	4 (22.2)	4 (20.0)	▲ 1
	미지원 (n=933, 940)	320 (34.3)	335 (35.9)	154 (16.5)	155 (16.6)	459 (49.2)	443 (47.5)	▲ 15

지원 여부에 따라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변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점수가 감소하여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원 기간에 따라 결과를 살펴본 결과 1년 지원 자활기업의 점수만 높아졌으며, 3년 이상과 미지원 자활기업의 점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영업이익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거나 모두 감소하였다.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미지원된 자활기업보다 감소 폭이 전반적으로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0〉 지역특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7, 12)	2.88 (1.05)	2.94 (0.97)	▲ 0.06	2.83 (0.94)	2.75 (0.97)	▼ 0.08
	미지원 (n=507, 627)	2.74 (0.94)	2.72 (0.95)	▼ 0.02	2.94 (0.92)	2.93 (0.93)	▼ 0.01
	t	.602	.956		-.396	-.680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 (n=17, 6)	2.88 (1.05)	2.71 (1.16)	▼ 0.17	2.83 (0.41)	2.83 (0.41)	동일 (비율 동일)
	2개 년도 연속 지원 (n=4, 1)	3.50 (0.58)	3.50 (0.58)	동일 (비율 동일)	3.00	3.00	동일 (비율 동일)
	1개 년도 지원 (n=13, 11)	2.69 (1.11)	2.77 (1.01)	▲ 0.08	2.82 (0.98)	2.73 (1.01)	▼ 0.09
	미지원 (n=933, 627)	2.74 (0.94)	2.72 (0.95)	▼ 0.02	2.94 (0.92)	2.93 (0.93)	▼ 0.01
	F	.407	.445		.965	.894	

*p < .05, **p < .01, ***p < .001

주1: 지원여부2에서 영업이익은 2개년도 연속 지원 값이 1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사후검정은 수행하지 못함

주2: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④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고용 성과를 살펴본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경우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고용인원이 모두 감소하였다. 지원 기간에 따라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1년 또는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 모두 증가하였다.

〈표 Ⅲ-51〉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 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3, 24)	44.70 (89.17)	48.75 (99.20)	▲ 4.05	29.48 (62.70)	30.13 (60.13)	▲ 0.65
	미지원 (n=964, 965)	10.55 (52.19)	10.17 (49.94)	▼ 0.38	7.08 (34.92)	7.01 (33.56)	▼ 0.07
	t	1.829	1.899		1.707	1.876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a) (n=4)	25.75 (21.11)	29.25 (21.22)	▲ 3.50	15.00 (12.27)	16.75 (12.28)	▲ 1.75
	1개 년도 지원(b) (n=19)	48.68 (97.71)	52.65 (108.38)	▲ 3.97	32.53 (68.72)	32.80 (65.64)	▲ 0.27
	미지원(c) (n=964)	10.55 (52.19)	10.17 (49.94)	▼ 0.38	7.08 (34.92)	7.01 (33.56)	▼ 0.07
	F	4.913** (c(b))	6.879** (c(b))		4.797** (a(b))	5.643** (a(b))	

*p < .05, **p < .01, ***p < .001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확인한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경우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년 지원 또는 2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 가운데 1년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 평균 영업이익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지원받은 경우,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평균 5,816만 원으로 1년 지원(평균 4 만 원)이나 미지원(평균 444 만 원) 자활기업보다 더 높았다.

〈표 III-52〉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3, 24)	104311.6 (170572.7)	115193.8 (193088.5)	▲ 10882.2	4442.6 (21174.1)	3501.2 (26284.8)	▼ 941.4
	미지원 (n=964, 965)	24739.5 (137417.5)	20425.1 (63842.0)	▼ 4314.4	-154.5 (5839.3)	-598.9 (6228.1)	▼ 444.4
	t	2.220*	2.401*		1.040	.764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a) (n=4)	82119.3 (76148.1)	83790.3 (82604.1)	▲ 1671.0	1654.0 (3308.0)	-4162.3 (8324.6)	▼ 5816.3
	1개 년도 지원(b) (n=19, 20)	108983.6 (185638.6)	121474.5 (209298.2)	▲ 12490.9	5029.7 (23325.1)	5033.9 (28470.4)	▲ 4.2
	미지원(c) (n=964, 965)	24739.5 (137417.5)	20425.1 (63842.0)	▼ 4314.4	-154.5 (5839.3)	-598.9 (6228.1)	▼ 444.4
	F	3.780* (c(b))	22.171*** (c(b))		5.910** (c(b))	6.284** (c(b))	

*p < .05, **p < .01, ***p < .001

법인사업자 개소를 확인한 결과,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법인사업자 개소 및 비율은 동일하였으며 미지원된 자활기업은 17개소가 늘고 총 자활기업 중 법인사업자 비율 역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53〉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총 자활기업수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3)	13 (56.5)	13 (54.2)	10 (43.5)	11 (45.8)	0 (0.0)	0 (0.0)	동일 (비율 감소)
	미지원 (n=964)	322 (33.4)	339 (35.1)	179 (18.6)	179 (18.5)	463 (48.0)	447 (46.3)	▲ 17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4)	2 (50.0)	2 (50.0)	2 (50.0)	2 (50.0)	0 (0.0)	0 (0.0)	동일 (비율 동일)
	1개 년도 지원 (n=19, 20)	11 (57.9)	11 (55.0)	8 (42.1)	9 (45.0)	0 (0.0)	0 (0.0)	동일 (비율 감소)
	미지원 (n=964, 965)	322 (33.4)	339 (35.1)	179 (18.6)	179 (18.5)	463 (48.0)	447 (46.3)	▲ 17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원받은 자활기업에서의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년 지원받은 자활기업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영업이익에 대한 인식은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증가한 반면 미지원된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 특히 2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다음으로 1년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4〉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1)	2.86 (1.01)	2.62 (1.07)	▼ 0.20	3.13 (0.96)	3.25 (0.77)	▲ 0.12
	미지원 (n=520)	2.75 (0.95)	2.73 (0.96)	▼ 0.02	2.93 (0.91)	2.92 (0.93)	▼ 0.01
	t	.525	-.504		.835	1.398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4, 2)	2.75 (0.96)	2.75 (0.96)	동일 (비율 동일)	3.05 (0.71)	3.50 (0.71)	▲ 0.45
	1개 년도 지원 (n=17, 14)	2.88 (1.05)	2.59 (1.12)	▼ 0.29	3.07 (1.00)	3.21 (0.80)	▲ 0.14
	미지원 (n=520, 629)	2.75 (0.95)	2.73 (0.96)	▼ 0.02	2.93 (0.91)	2.92 (0.93)	▼ 0.01
	F	.169	.173		.540	1.059	

* $p < .05$, ** $p < .01$, *** $p < .001$

주1: 지원여부2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미지원 < 3개년도 연속 지원으로 나타남

주2: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⑤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의 효과성 분석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의 고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이 증가한 데 반해, 미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55〉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8)	43.46 (87.93)	49.07 (96.36)	▲ 5.61	29.39 (60.99)	30.96 (57.78)	▲ 1.57
미지원 (n=959, 961)	10.41 (51.95)	10.00 (49.72)	▼ 0.41	6.96 (34.77)	6.89 (33.47)	▼ 0.07
t	1.979	2.137*		1.937	2.194*	

* $p < .05$, ** $p < .01$, *** $p < .001$

주: 자활생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2년 이상 연속 지원받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받은 경우와 미지원 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함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살펴본 결과, 지원 받은 자활기업의 평균 매출액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은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약 203만 원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평균 471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6〉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8)	102415.1 (155535.8)	92104.4 (164886.3)	▼ 10310.7	2316.6 (19543.9)	2519.4 (24533.7)	▲ 202.8
미지원 (n=959, 961)	24380.0 (1376637.3)	20703.4 (65543.7)	▼ 3676.6	-116.4 (5842.4)	-587.4 (6221.8)	▼ 471.0
t	2.625*	2.286*		.658	.669	

* $p < .05$, ** $p < .01$, *** $p < .001$

우수자활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개소 및 비

율이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가 17개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7〉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28)	15 (53.6)	15 (53.6)	13 (46.4)	13 (46.4)	0 (0.0)	0 (0.0)	동일 (비율 동일)
미지원 (n=959, 961)	320 (33.4)	337 (35.1)	176 (18.4)	177 (18.4)	463 (48.3)	447 (46.5)	▲ 17

당기순이익에 경제적 성과 인식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 해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에서 감소 폭이 더 컸다.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 인식은 지원 자활기업은 증가한 반면, 미지원된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

〈표 III-58〉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6, 7)	3.09 (1.08)	2.87 (1.14)	▼ 0.22	3.06 (0.97)	3.29 (0.85)	▲ 0.23
미지원 (n=535, 638)	2.74 (0.94)	2.72 (0.95)	▼ 0.02	2.93 (0.91)	2.92 (0.93)	▼ 0.01
t	1.739	.635		.559	1.642	

*p < .05, **p < .01, ***p < .001

주: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3) 경영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라 고용 성과를 비교한 결과,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총 고용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자활기업과 미지원 자활기업 간 차이도 크지 않다. 지원 기간에 따라 총 고용인원을 살펴본 결과, 2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만 약간 증가하였으며 1년 지원과 3년 연속 지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지원 자활기업은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 2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과 1년 지원 자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59〉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고용성과 비교

(단위: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23, 139)	9.95 (33.55)	9.72 (32.82)	▼ 0.23	6.41 (17.91)	6.57 (18.47)	▲ 0.16
	미지원 (n=853, 839)	11.62 (56.15)	11.41 (54.79)	▼ 0.21	7.82 (38.04)	7.79 (36.78)	▼ 0.03
	t	-0.321	-0.354		-0.407	-0.384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 (n=11)	5.91 (4.18)	5.36 (3.88)	▼ 0.55	3.64 (2.66)	3.64 (3.26)	동일 (비율 증가)
	2개 년도 연속 지원 (n=21)	28.19 (78.80)	28.30 (77.75)	▲ 0.11	17.19 (41.58)	18.09 (43.35)	▲ 0.90
	1개 년도 지원 (n=102)	6.20 (6.84)	6.03 (7.30)	▼ 0.17	4.19 (3.96)	4.28 (4.23)	▲ 0.09
	미지원 (n=853)	11.62 (56.15)	11.41 (54.79)	▼ 0.21	7.82 (38.04)	7.79 (36.78)	▼ 0.03
	F	1.054	.861		1.265	1.117	

*p < .05, **p < .01, ***p < .001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한 해 이상 지원받은 경우

평균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하였다. 특히 2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 증가 폭(평균 2,452 만 원 증가)이 가장 컸으며, 3년 연속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감소 폭(평균 1,451 만 원 감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은 한 해 이상 지원받은 경우 감소 폭(평균 1,293 만 원 감소)이 미지원(평균 317 만 원 감소)보다 더 컸다. 또한 1년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평균 117 만 원 증가한 반면, 3년 연속 또는 2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은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표 III-60〉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23, 139)	21191.7 (53851.2)	21368.7 (51391.5)	▲ 177.0	448.8 (9310.5)	-843.8 (6445.7)	▼ 1292.6
	미지원 (n=853, 839)	27547.3 (147777.0)	23095.4 (74325.6)	▼ 4451.9	-119.0 (6168.7)	-435.8 (7553.2)	▼ 316.8
	t	-.472	-.264		.886	-.602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a) (n=11)	13056.0 (10195.9)	11604.7 (11588.5)	▼ 1451.3	-42.2 (3784.5)	-1002.9 (3353.4)	▼ 960.7
	2개 년도 연속 지원(b) (n=21, 23)	40098.2 (109979.3)	42550.0 (106194.8)	▲ 2451.8	5910.3 (20733.5)	-2280.3 (12415.9)	▼ 8190.6
	1개 년도 지원(c) (n=102, 116)	17299.2 (31908.5)	17169.0 (30073.0)	▼ 130.2	-675.5 (3479.4)	-559.0 (4457.8)	▲ 116.5
	미지원(d) (n=853, 839)	27547.3 (147777.0)	23095.4 (74325.6)	▼ 4451.9	-119.0 (6168.7)	-435.8 (7553.2)	▼ 316.8
	F	.267	.929		6.108*** (d, c(b))	.487	

*p < .05, **p < .01, ***p < .001

주: 지원여부2에서 2022년 영업이익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미지원, 1개 년도 지원, 2개 년도 연속 지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미지원, 1개 년도 지원 < 2개년도 연속 지원)

법인사업자 비율은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증가 폭(9개소 증가)이 미지원 자활기업(8개소 증가)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1년 지원 자활기업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경영관리지원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총 자활기업수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123, 139)	49 (39.8)	58 (41.7)	21 (17.1)	28 (20.1)	53 (43.1)	53 (38.1)	▲ 9
	미지원 (n=853, 839)	279 (32.7)	287 (34.2)	167 (19.6)	161 (19.2)	407 (47.7)	391 (46.6)	▲ 8
	3개 년도 연속 지원 (n=11)	7 (63.6)	7 (63.6)	1 (9.1)	1 (9.1)	3 (27.3)	3 (27.3)	동일 (비율 동일)
지원 여부 2	2개 년도 연속 지원 (n=21, 23)	10 (47.6)	11 (47.8)	4 (19.0)	5 (21.7)	7 (33.3)	7 (30.4)	▲ 1
	1개 년도 지원 (n=102, 116)	39 (38.2)	47 (40.5)	17 (16.7)	23 (19.8)	46 (45.1)	46 (39.7)	▲ 8
	미지원 (n=853, 839)	279 (32.7)	287 (34.2)	167 (19.6)	161 (19.2)	407 (47.7)	391 (46.6)	▲ 8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변화 인식은 지원 자활기업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인식은 미지원 자활기업이 증가한 반면, 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된 경우는 2년 연속 지원 자활기업이었으며,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된 경우는 3년 연속 지원 및 미지원 자활기업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지원 여부 1	2021년, 2022년, 2023년 중 한 해 이상 지원 (n=86, 95)	2.71 (0.93)	2.73 (0.94)	▲ 0.02	2.94 (0.95)	2.82 (0.99)	▼ 0.12
	미지원 (n=445, 541)	2.76 (0.95)	2.72 (0.96)	▼ 0.04	2.94 (0.91)	2.95 (0.92)	▲ 0.01
	t	-.409	.139		-.021	-1.185	
지원 여부 2	3개 년도 연속 지원 (n=10, 9)	2.90 (1.10)	2.90 (1.20)	동일 (비율 증가)	2.78 (0.97)	2.89 (0.93)	▲ 0.11
	2개 년도 연속 지원 (n=17, 15)	2.76 (0.97)	3.18 (1.01)	▲ 0.42	3.27 (0.59)	3.00 (0.85)	▼ 0.27
	1개 년도 지원 (n=69, 80)	2.70 (0.93)	2.62 (0.89)	▼ 0.08	2.88 (1.00)	2.79 (1.01)	▼ 0.09
	미지원 (n=445, 541)	2.76 (0.95)	2.72 (0.96)	▼ 0.04	2.94 (0.91)	2.95 (0.92)	▲ 0.01
	F	.163	1.636		.864	.748	

*p < .05, **p < .01, ***p < .001

주1: 지원여부2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미지원 < 3개년도 연속 지원으로 나타남

주2: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1점(매우 감소), 2점(감소), 3점(유지), 4점(증가), 5점(매우 증가)로 구성된 5점 척도임

3) 사업지원 전체 사업에 대한 소결

사업지원 사업들의 수혜 자활기업들의 고용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일부 경제적 성과(매출액)와 일부 주관적인 경제적 성과 인식(영업이익)은 다수 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다만 사업지원 수혜 자활기업의 수가 워낙 적어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나 ‘경영관리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있어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사업지원 사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성과는 사업별 지원 여부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에 2021년부터 2023년 사업지원 수혜 여부를 모두 합하여 미지원, 1개년도 지원, 2개년도 이상 또는 2개 사업 이상 지원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성과, 경제적 성과, 법인사업자 증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고용 성과를 확인한 결과, 미지원과 1개년도 지원, 2개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 간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지원 기업은 총 고용인원이 2022년 기준 5.7명인데 1개년도 지원 기업은 22.87명, 2개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기업은 24.22명으로 조사되었다. 취약계층 고용인원 역시 2개년도(2개 사업) 지원 기업은 2022년 15.62명, 1개년도 지원 기업은 15.21명, 미지원 기업은 3.97명으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나아가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모두에서 2개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기업만 인원이 증가하였고, 미지원 기업이나 1개년도 지원 기업은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고용성과 비교

(단위 : 명)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a) (n=150, 153)	24.22 (54.66)	24.97 (57.74)	▲ 0.75	15.62 (36.64)	16.29 (38.23)	▲ 0.69
1개 년도 지원(b) (n=163, 180)	22.87 (115.38)	19.48 (104.38)	▼ 3.39	15.21 (77.47)	13.39 (69.42)	▼ 1.82
미지원(c) (n=674, 656)	5.70 (15.16)	5.58 (14.93)	▼ 0.12	3.97 (10.36)	3.94 (10.35)	▼ 0.03
F	12.141*** (c<b(a)	11.757*** (c<b(a)		11.054*** (c<b(a)	11.247*** (c<b(a)	

*p < .05, **p < .01, ***p < .001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한 결과, 지원 자활기업은 평균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지원 자활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23년 평균 매출액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1개 년도 지원 자활기업, 미지원 자활기업 순이었다. 그러나 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대비 2023년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표 III-64〉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 비교

(단위 : 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영업이익 평균(표준편차)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a) (n=150, 153)	50783.2 (89006.1)	50892.4 (89721.9)	▲ 109.2	-898.6 (10443.1)	-2261.4 (10872.7)	▼ 1362.8
1개 년도 지원(b) (n=163, 180)	22976.7 (56111.8)	25125.6 (62382.1)	▲ 2148.9	115.4 (9807.8)	-0.3 (12201.2)	▼ 115.7
미지원(c) (n=674, 656)	22085.1 (159741.4)	15496.6 (66768.5)	▼ 6588.5	102.5 (4081.9)	-225.5 (3600.6)	▼ 328
F	2.702	15.961*** (c,b(a))		1,465	5.283** (a(c,b))	

*p < .05, **p < .01, ***p < .001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법인사업자 전년대비 증감을 확인한 결과,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활기업의 법인사업자 개소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은 전년대비 3개소가(1.1p% 증가), 1개 년도 지원 자활기업은 10개소가(1.6%p 증가), 미지원 자활기업은 4개소가(1.4%p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5〉 사업지원 전체 사업 시행 전후 자활기업 및 유형별 변화

(단위 : 개소, %)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전년대비 증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n=150, 153)	69 (46.0)	72 (47.1)	53 (35.3)	53 (34.6)	28 (18.7)	28 (18.3)	▲ 3
1개 년도 지원 (n=163, 180)	68 (41.7)	78 (43.3)	38 (23.3)	44 (24.4)	57 (35.0)	58 (32.2)	▲ 10
미지원 (n=674, 656)	198 (29.4)	202 (30.8)	98 (14.5)	93 (14.2)	378 (56.1)	361 (55.0)	▲ 4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평균 당 기준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1년 이상 지원받은 자활기업들은 2022년 대비 2023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 자활기업의 경우 경제적 성과 변화 값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점수는 지원 자활기업들이 미지원 자활기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은 점수가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개 년도 지원 자활기업은 점수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미지원 자활기업은 2022년과 동일한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역시 평균 점수는 지원 자활기업들이 미지원 자활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사업지원 전체 사업의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비교

(단위 : 점)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당기순이익의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경제적 성과 변화 인식 영업이익의 평균(표준편차)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개 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a) (n=114, 94)	2.75 (0.98)	2.74 (0.98)	▼ 0.01	3.04 (0.99)	3.07 (1.01)	▲ 0.03
1개 년도 지원(b) (n=111, 131)	2.99 (0.92)	2.96 (0.92)	▼ 0.03	3.13 (0.88)	3.07 (0.93)	▼ 0.06
미지원(c) (n=314, 420)	2.67 (0.94)	2.64 (0.95)	동일	2.85 (0.90)	2.85 (0.90)	동일
F	4.686* (c(b))	4.841** (c(b))		5.409** (c(b))	4.025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지금까지 사업별 성과와 사업지원 사업들 전체의 성과를 아래 표와 같이 종합해 보면, 고용성과는 ‘지역특화 지원사업’과 ‘경영관리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대체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경제적 성과로 전체 7개 사업 중 4개 사업(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지원 사업들 전체를 합한 결과에서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과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만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지원 사업 전체 평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의 증감을 보면,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역특화 지원사업’, ‘경영관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만 법인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지원 사업 전체 역시 법인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적 성과를 보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낮아지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특화 지원사업’과 ‘경영관리지원사업’ 지원받은 자활기업만이 당기순이익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

으로 변화한 사업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과 사업지원 사업들 전체인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긍정적 변화 인식을 확인하였다.

〈표 Ⅲ-67〉 사업지원 수혜 자활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종합

사업 (n=2022,2023)		고용성과		경제적 성과		법인 사업자 증감	주관적 경제적 성과	
		총고용	취약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당사이익	영업이익
판로 지원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n=10,8)	↑	↑	↑	↓	↓	동일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n=49)	↑	↑	↓	↑	동일	↓	↑
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n=194,198)	↑	↑	↑	↓	↑	동일	↑
	지역특화 지원사업 (n=25)	↓	↓	↓	↓	↑	↑	↓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 (n=23,24)	↑	↑	↑	↓	동일	↓	↑
	우수자활기업 선정 (n=28)	↑	↑	↓	↑	동일	↓	↑
경영 지원	경영관리 지원사업 (n=123,139)	↓	↑	↑	↓	↑	↑	↓
사업지원 사업 전체		↑	↑	↑	↓	↑	↓	↑

주: 사업지원 사업 전체의 정보는 2개년도(2개 사업) 이상 지원 자활기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IV

중앙자활자금 사업 효과성 평가

1. 중앙자활자금 효과성 종합 평가
2. 중앙자활자금 사업별 효과성과 제언
3. 현행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4. 종합 결론 및 제언

IV

중앙자활자금 사업 효과성 평가 《

1. 중앙자활자금 사업 효과성 종합 평가

우선 중앙자활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거나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표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별 효과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사업 관리와 관련한 제언은 다음 4장 3절에서 다루며, 본 절에서는 사업별 효과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먼저 사업별 효과성을 종합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영업순이익은 지원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모두 감소하여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인해 일정 정도의 매출액 상승이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순이익 감소율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량강화 지원 중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교육컨텐츠 개발과 활용, 교육만족도, 인지도 등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자활기업 대표자의 조직문화, 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자활기업 창업과 법인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에의 전문인력 대상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성과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환경지원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와 취약계층 고용을 포함한 총고

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인 성과 인식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자활기업들의 법인사업자 개소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사업에 지원받은 자활기업들의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이 증가하여 고용 성과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표 IV-1〉 중앙자활자금 효과성 평가 요약

		경제적 성과	고용성과	사회적 성과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매출총이익 대체로 증가 영업 순이익 감소 	-	-
역량강화 지원사업	교육훈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업 창업 증가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컨텐츠 제작 인지도 만족도 활용도 등 사업 목표 달성 자활기업 대표의 자조문화 기업가 정신 사회화 추진에 긍정적 영향
	인건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기여 (지원받은 곳 감소)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고용 증가 취약계층 고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증가
시설환경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고용 증가 취약계층 고용 증가 	-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다수 증가 자활기업 법인화 증가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인 경제적 성과 인식 다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고용 증가 취약계층 고용 증가 	

2. 사업별 효과성과 제언

본 절에서는 앞의 4장 1절에서 다룬 전반적인 사업별 효과성 평가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별 효과성 평가 결과와 결론을 내기 어렵거나 평가가 제약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 창업지원 사업

먼저 창업지원의 경우, 주된 성과지표로 매출액, 매출총이익과 고용자 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더불어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보고자 연도별 창업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 수혜 자활기업을 분리하여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개괄하자면,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증가한 것과 달리, 영업순이익은 오히려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부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창업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혜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들의 매출총이익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창업 운영자금을 한 번 이상이라도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 대비 2023년 매출액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가 매출 증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매출액의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설령 매출액의 감소를 겪더라도 그 감소 폭이 작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창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매출총이익의 차이를 보았을 때, 창업 운영자금의 경우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매출총이익 상승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는 지원은 ‘창업 운영자금’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유효하지 않은 부문도 존재해,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정밀한 지원이 요구된다.

2) 역량강화지원 사업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훈련지원사업에는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자활기업 창업교육 지원, 사례관리 지원,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 교육 등 4개의 사업이, 인건비 지원에는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이 포함된다. 사례관리 지원사업과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

교육사업은 자료의 한계로 성과 분석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자활기업 창업교육 지원,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 등 3개 사업을 검토하였다.

역량강화지원사업은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고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자활기업 창업, 자활기업 법인화,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고용성과, 사회적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세부 사업별로 효과성 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목표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목표로 설정한 활용도, 인지도,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이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 모두 각기 42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2023년 콘텐츠 시청/청취율을 조사한 결과, 목표치인 6,000명 대비 57,065명이 시청하여 목표 대비 951.1% 달성률을 보인다. 콘텐츠 개발 외에 인지도, 교육만족도,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만족도와 활용도 각각 3.67점, 3.69점으로 목표 3.5점을 초과 달성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조사의 타당도와 목표(3.5점) 달성 기준이 설정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정교한 효과성 평가와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 욕구조사에 기반한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홍보 및 교육콘텐츠 간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에 대한 보다 정교한 파악을 위해 교육콘텐츠의 활용 정도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가 검증된 학습전이 척도 활용, 콘텐츠별 접속자 수, 콘텐츠별 시청/청취자 수, 구독자 수, 좋아요 수 등의 증감을 파악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자활기업 창업교육 지원사업

다음으로 자활기업 창업교육지원 또한 목표 교육 횟수, 참여자 수 및 만족도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자활기업 대표의 조직문화, 기업가정신,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활기업의 수와 법인형 자활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자활기업 창업 및 자활기업의 법인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23년 창업준비교육 123회, 보수교육 23회 등 146회의 교육을 4,023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목표 2,800명 대비 143.7%에 달하는 참여자가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4.21점으로 목표 4.0점을 초과 달성하였다.

더불어 2023년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이 시행되면서 자활기업 대표자의 조직문화, 기업가정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으며,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유의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 시행 이후 2022년에 비해 자활기업이 8.7% 정도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 자활기업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법인형 자활기업의 증가율이 가장 커 본 사업의 자활기업 창업 및 자활기업의 법인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향후 창업지원 교육은 창업지원에서 나아가 자활기업의 단계별, 유형별로 교육을 체계화, 전문화하고, 더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3)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던 한시적 인건비 지원사업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자산키움펀드(현 중앙자활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으나 2023년에 광역자활센터로 이관하고 집행률이 향상했다. 해당 사업은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를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대 5년간 자활기업에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2022년에는 67개 자활기업을, 2023년에는 2022년 지원받은 67개 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과 함께 51개 기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2022년과 2023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총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사회적가치 실천 정도, 법인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고용,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받은 기업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향상한 모습을 보여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제적 성과.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2022년과 2023년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매

출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감소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컸다. 영업이익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용성과.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2022년과 2023년의 총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비교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은 취약계층고용 및 총고용 인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취약계층고용 및 총고용 인원 모두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취약계층고용 및 총고용 인원 모두 증가 정도가 가장 커서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자활기업의 고용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성과.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 간 2022년 및 2023년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대표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지원받은 기업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지원받지 않은 기업 대표 대비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연속 지원받은 기업 대표의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아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자활기업 법인화 촉진.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법인격의 자활기업 한정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기업의 법인화, 혹은 법인격의 자활기업 창업을 독려하는 부가적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자활기업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시작된 2021년에 비해 2022년, 2023년에 법인형 자활기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자활기업 수 대비 법인형 자활기업의 비중이 32.1%, 33.9%, 34.2%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만의 효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한 자활기업의 법인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제적, 고용 측면의 유지 및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향후 전문인력의 역할 및 자격과 역량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설환경 지원사업

시설환경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자활센터 시설개선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의 3개 사업을 분석하였고, 주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사업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사업은 2022년, 2023년 모두 전반적으로 목표한 지원을 성취하고, 나아가 매출액 상승과 같은 경제적 성과, 취약계층 고용, 총고용 인원 증가와 같은 고용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2년 109개 지역자활센터 117개 사업단, 2023년에는 141개 지역자활센터 16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장 마련, 시설 개보수, 장비구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 성과에 미친 영향, 즉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 변화, 취약계층 고용, 총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 취약계층 및 총고용인원 변화가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사업이 자활기업의 경제적 및 고용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센터시설 개선사업은 2022년 지역자활센터 35개소, 2023년 9개 광역자활센터, 61개 지역자활센터 등 70개 센터의 시설개선 및 작업장 보수를 지원한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자활기업의 매출액 변화, 취약계층 고용, 총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 취약계층 및 총고용인원 변화가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사업이 자활기업의 경제적 및 고용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센터시설 개선사업은 그 성격이 유사한 만큼 2024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무엇보다도 참여자 수, 종사자 수 증가 등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효과이기에, 지속적으로 해당 지표를 평가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설개선을 통해 참여자와 근로자의 근로만족도 향상, 근로환경 및 센터의 서비스 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 조사를 통해 향후 정성적 측면의 사업 효과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2)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신축·리모델링 및 지역자활센터 신축·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허브 활용, 자활근로 사업장의 효율적 사업 운영 및 사업 간 시너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10억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자체 지원을 내용으로 두어, 지자체의 매칭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은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으나 사업 진입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에는 4개, 2023년 6개 지자체로 지원받은 지자체의 수가 제한적이거나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7개 지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계속해서 협조적인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지역에 속한 자활기업과 그렇지 못한 자활기업의 2022년과 2023년의 매출액, 고용인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록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자활기업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지원을 받은 지역의 자활기업 매출액은 상승하였다. 또한 취약계층고용인원 및 총고용인원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자활기업 고용인원은 감소한 반면, 지원을 받은 지역의 자활기업 고용인원은 증가하였다. 이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이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된다.

본 사업은 자활기업의 궁극적 성과로서 매출액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사실상 자활기업의 규모화와 협업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운영 경비 절감률, 기업 및 사업단 규모화, 협업 횟수 등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차적 목적인 해당 지역 자활근로 사업장 및 자활기업의 규모화, 협업에 미친 효과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취약계층고용 인원, 총고용 인원의 변화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 및 사업단 유지율, 규모화를 추정함. 따라서 향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 사업장과 자활기업 간 협력 및 협업 성과, 규모화를 통한 추가 고용, 규모화를 통한 운영비 감축 등이

추가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업지원 사업

사업지원 사업의 실적과 주된 성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업활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비용 지출이 컸던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지원비가 약 8배 증가하며 사업비 지원 규모가 커졌고, 다음으로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예산 집행률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전년 대비 사업비 지원 규모와 사업지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원 개소가 증가했고, ‘우수자활기업 선정’ 사업은 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우수자활기업을 선정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경영지원관리사업’은 목표 대비 지원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처럼 사업의 실제 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세부 사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성과는 총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법인사업자가 증가하였다는 점, 영업이익에 대한 주관적인 경제적 성과 변화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인식 역시 사업지원 사업들에 참여한 자활기업들이 보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원받은 자활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와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는 기대했던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첫째, 투입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산 집행이 당해연도 기대했던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업은 예산이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았다. 예산 활용이 높으며,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성과와 평균 매출액 증가, 법인사업자 증가, 주관적 성과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최소한 당해연도의 예산 집행률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 기업의 수가 매우 적어 성과와 성과 부진에 대한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원받은 자활기업 수는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10개소, ‘지역특화 지원사업’ 25개소, ‘우수자활기업 선정’ 28개소 등 지원받은 개소

수가 적어 성과에 대한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사업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 개소 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원 기업의 수가 적어 그 성과를 제대로 포착해 내기 어렵다.

셋째,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객관적 통찰이 미흡하며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사업지원을 받은 자활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활기업의 수익성과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등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성과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3. 현행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1)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6개소, 광역자활센터 3개소, 자활기업협회 1개소, 지역자활센터협회 1개소, 외부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FGI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 12명 중 11인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 IV-2〉 중앙자활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 조사 개요

ID	직위	소속
A-1	실장	○○지역자활센터
A-2	실장	□□지역자활센터
A-3	실장	◇◇지역자활센터
B-1	실장	○○광역자활센터
B-2	국장	□□광역자활센터
B-3	국장	◇◇광역자활센터
B-4	사무총장	한국자활기업협회
C-1	총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C-2	센터장	△△광역자활센터
D-1	박사	재정·금융 부문 연구기관
D-2	박사	노인 정책 부문 연구기관

2) 현행 중앙자활자금의 추진

(1) 창업지원, 활성화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자금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는 자금 집행 구조의 타당성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활성화 지원, 지역균형발전 자금을 대한 집행 구조 타당성에 대해 FGI를 실시한 결과, 집행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공모방식에서 수시모집 방식으로의 제안이 있었다. 또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 체계 자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으로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세 영역 간 자금의 비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지역균형자금의 분류명과 하위 사업체계 간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전문가는 기존 사업들을 자활근로지원, 자활기업지원, 자활사업 인프라 지원으로 재분류하고, 각 사업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앙자활자금의 사업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각 지원 분야별 하위사업체계를 재배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IV-3〉 중앙자활자금 집행 구조의 타당성

구분	주요 내용
집행방식	- 공모방식에서 수시모집으로 변경 필요 (A-1, A-2, B-4)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분이 구분이 명료하지 않음 (B-1, B-2) - 더 다양한 영역 지원 확대 필요 (A-3, B-4) - 창업지원 카테고리에 비해 활성화 지원은 범주가 상당히 넓게 활용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자금은 목적의 특수성이 보여, 목적 중심의 카테고리 설정이었다 하더라도 하위 범주의 폭이 균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단, 지역 균형 발전자금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계정과목인지 모르겠음 (B-2) - 지역균형자금의 경우 지역특화사업이나 자활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한 지역에서 벗어나 보다 여러 지역에 걸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위한 공동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이라는 명칭과는 다소 괴리 (D-1) - 현재의 분류체계에서 자활근로 지원, 자활기업지원, 자활사업 인프라 지원 등으로 재분류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 있음 (D-1) ※ 자활근로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자활 도우미 지원사업 등, ※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창업 지원사업, 경영관리지원사업, 자활생산품판로지원, 우

수 자활기업 선정,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정부양곡 배송사업 영업용 번호판, 지역특화사업 등.
 ※ 자활사업 인프라 지원: 신용보증기금 출연(한시적이니 큰 의미는 없음), 참여자 자기 주도 학습자료 개발보급, 자활 사례관리 지원, 공유 용기 인프라 구축,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운영비 등으로 구분

(2) 각 부문(창업지원/활성화 지원/지역 균형 발전 자금) 내 예산 배분의 적절성

부분별 예산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 분류를 할 수 있었다. 첫째, 창업지원사업 중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배분 방식에 관해 규모화 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기반 조성까지 고려한 예산을 배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배분 원칙의 투명성 제고로서, 지역균형발전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과연 사업지역간 균형 발전과 연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배분 비율 관련 의견이 많이 제시된다. 주요한 내용은 부문별 지원 시 배분 비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는 지역별 수요 및 정책적 방향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각 사업지원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간 예산 배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문별 예산에 대한 확대 요구가 있었다. 즉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자금 및 자활기업 성장 자립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운영자금의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창업자금 지원 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여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는 창업지원 자체가 큰 규모의 재원이 소요됨과 동시에 지원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원을 통한 성과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횟수와 관련해서 창업지원은 현행 연 4회 공모방식보다는 탄력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활성화 사업지원 방식도 대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의 특성도 충분히 고

려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외형적으로 매출액이 큰 기업이나 고용자 수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 형태의 자활기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표 IV-4〉 세부 사업 부문 내 예산 배분의 적절성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 구분	- 창업지원 사업 보증금과 운영비로 구분하지 않고 Block 예산으로 통합지원 필요 (A-1)
지원 분야 확대	- 기존 임대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A-2)
배분 방식	- 규모 있는 기업 창업지원 시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까지 고려한 예산 배분 필요 (B-1)
배분 원칙	- 지역균형발전자금의 단위 사업이 실제 지역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 수 없음. 공모에 따른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 내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에 따라 투명한 배분과 선정이 필요 (B-2)
배분 비율	- 창업지원 20.9%, 활성화 지원 36.7%, 지역균형발전자금 42.4%이므로 지역균형발전자금의 비중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함. 특히 지역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이 과다하여(100억 편성, 약 85억 집행) 지역별 예산 배분의 형평성 부분임 (B-3) - 자활사업 활성화 자금 규모가 창업자금의 2배 정도인데 이는 다소 높지 않나 생각되고 자산형성 예산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B-4) - 창업지원 분야에 자금이 집중되고,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른 균형 있는 자금 배분이 미흡 (D-2)
예산 확대	- 창업자금 및 자활기업 성장 자립지원 예산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 (B-4) - 운영자금 지원 최대 금액을 일률적으로 최대 1억 원이 아닌 업종별로 최대 금액을 상이하게 하여 1억~3억까지 편성하는 방안 필요 (B-4) - 창업자금의 규모는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역이나 광역을 기반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반하여 예측된 수요에 대해 가능하면 지원하여 주는 것이 타당 (B-4)
지원 방식	- 창업지원은 연간 4회 공모방식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B-4)
지원 대상	- 활성화 지원은 대부분 자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음. 그런데 외형적으로 매출액이나 사업경영 등이 어느 정도 되는 자활기업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자활기업 구조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다수인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B-4)

(3) 세부 사업 중 신설 가능성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

부문별 세부 사업 중 신설 가능성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큰 틀에서 신규사업 관련해 지원 분야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신규로 운영할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위기에 처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광역자활센터 차원의 제안 기획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전국 단위 규모화 사업 및 시도별 자활기업 협업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국 단위 자활사업 인식개선 사업 및 자활 전달체계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및 활성화 지원금을 활용한 자활기업의 자산화 사업지원도 함께 요구되었다.

둘째, 지원 금액에 관해, 전문가는 사업단의 창업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아마도 기존 창업지원금 수준으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창업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5〉 세부 사업 중 신설 가능성 및 보완 사항 제안

구분	주요 내용
신규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자활자금이 지원할 영역에 대한 명확성을 높일 필요 (D-1) - 신규 추진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창업자금 수준) (A-1) - 위기 지원(경영 혹은 재난), 제안 기획 사업(광역 간 기획/광역 단위 기획사업)지원 등 확대 필요 (B-1) - 공유 용기 인프라 구축 사업, “정부 양곡(중략)대출 지원”의 경우, 전국화 사업 지원 등으로 변경 필요 (B-2) - 시도별 자활기업에 대한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을 추가 (B-2) - 활성화 지원의 신규사업: 전국 단위 자활사업 인식개선 방송 홍보사업, 개발원이나 광역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B-3) - 전국적 자활 촉진을 위해 전국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이 필요 (B-4) - 활성화 지원금에 ‘자활기업 자산화지원사업 신설: 자활기업 간 협업을 통해 안정적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화 사업에 필요한 용자 지원사업 필요 (B-4)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창업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 금액을 더 높여야 함 (B-4)

3) 중앙자활자금 지원 절차 관련, 현행 지원 방식인 공모제에 관한 평가

(1) 공모제 진행의 한계와 그에 대한 개선 사항

현행 공모제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 공모 서식의 간소화, 공모 시기(계획 - 선정 - 사업 시행)가 다르므로 발생하는 자활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심사위원 위촉 시, 자활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있는 전문위원으로 섭외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으로서, 외부 심사위원 중 자활전문가 또는 자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인사가 공모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질문 등을 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에는, 전년도 또는 과거 사업 실적 및 성과(사업수혜실적이 있는 기업 대상), 기존 또는 현재 진행되는 센터 내 사업 간 연계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속한 광역으로 이관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시 서류와 면접 심사 이외에 기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지원 대상으로서 적절한지 다각적으로 평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 공모 내용과 달리 과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지원 기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넷째, 공모방식에 관하여, 경영관리 사업의 경우 공모에서 비공모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으며, 연초 광역별 해당 사업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량 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지역특화사업의 경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센터의 규모에 맞는 지원 상한액을 정하고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단, 전국적인 규모화 사업은 개발원이 진행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모방식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진행하고, 그리고 지원 대상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가령 이관 사업의 경우, 형평성, 공정성, 성과 관리 차원 등에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6〉 공모제 진행의 한계 및 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모 서식	- 공모 서식의 간소화할 수 있는 표준양식 필요 (A-1)
심사위원	- 심사위원 적절성:자활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위원 섭외 지양 (A-2)
공모 시기	- 계획서 작성 시기와 공모 선정 시 기간 발생한 사업비 상승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필요 (A-2)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선정시,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성과 반영 필요 (B-2) - 사업간 연계성을 높여 지원사업 효과성 향상 (B-1) - 지역균형발전자금의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 및 누적 자활기금 조성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에 광역별(시도 단위별) 이관 예산 배정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가 필요 (B-2) - 신청서류와 면접 심사 외에 지원기관을 통한 기업 현황 파악, 경영 컨설팅을 통한 지원 타당성확인 등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를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B-4)
공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 지원사업의 비공모 방식 전환 필요함. 비공모 방식 전환 시, 프로세스 개편은 필요 (B-2) - 연초 광역별 해당 사업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접수한 광역자활센터가 컨설팅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예시:신청-접수-사전진단(신청사업 내용, 회차, 컨설팅 개입 시기 등)-컨설팅실 시-종료-평가-사후 지원) (B-2) -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센터 규모별 지원 상한금액을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 요청하며 공유 용기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공모가 아닌 개발원이 기획하고 지역별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전환 요청(B-3) - 공모방식도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운영 필요. 획일적 운영방식보다는 맞춤형 운영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C-1) - 중앙기관 주관 공모사업을 광역 단위로 이관해 운영하는 ‘공모 이관형 사업’은 지역 간 역량 차이로 사업성과 편차 발생하고 중앙-광역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사업 효율성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그럴 뿐만 아니라 형평성 및 공정성 저하, 성과관리의 일관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D-2)

(2) 형평성 확보를 위한 비공모 방식 도입의 필요성

중앙자활자금 지원 방식 중 비공모 방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의 한에서는 비공모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공모방식이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원 자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특히 영세한 자활기업에 대한 공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즉, 영세한 자활기업 지원 시 비공모 방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비공모 방식을 도입했을 때 기본 방향은 공모제를 폐지하고 직접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모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매우 중요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즉, 사업지원 방식을 공모제에서 비공모제로 전환할 때,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과 동시에 공모 주체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비공모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구분	주요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비공모방식으로 추진 필요 (A-1) - 공모방식이 실현되려면 창업자금과 같이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자활기업의 2/3가 5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이고, 최근 3년간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이전에는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이 없었고, 자활자금 또한 임대보증금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B-4)
사업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사업의 일부 비공모 방식 도입 : 추가 트랙(2개 이상 광역(시도)의 공동 지역특화사업) 운영 필요. 일반 지역특화 비공모, 2개 이상 광역 간 공동사업은 개발원 공모 (B-2) - 비공모방식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처럼 지원하는 것이라면 자활기업 성장과 자립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일 것임 (B-4)
사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창업지원 사업은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공모제를 폐지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C-1)

	<p>- 공모제/비공모제 논의 이전에 중앙이나 광역이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할 역량이 되는가에 있을 것임. 아예 지방에서 수행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앙이나 광역이 주도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하려면 결국 중앙이나 광역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 (D-1)</p> <p>* 비공모제로 한다면 비공모제로 하는 정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모제의 경우에도 중앙이나 광역이 제도 설계나 평가, 관리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임 (D-1)</p>
--	--

(3) 중앙-광역 단위로 진행되는 공모 이관형 사업의 적절성

중앙 또는 광역 단위로 진행되는 공모 이관형 사업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첫째, 기본적으로 공모 주체는 현장 친화적인 사업지원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도입하여 위기 사업에 처한 자활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술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던 사업을 광역 단위로 이관할 때 광역자활센터 차원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일시적인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앙 단위 지원 방식에서 광역 단위로 상당수의 사업이 이관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둘째, 만약 중앙 단위의 사업을 광역으로 이관할 때, 이관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경우, 실제 적용 과정에서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앙-광역 사업 이관 시, 전제될 것은 광역자활센터가 과연 공모형 사업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획, 운영할 수 있는가이다. FGI 조사 결과, 관련 문항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광역자활센터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모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여건으로 제안되었다.

넷째, 이관된 사업의 경우, 개발원이 사업별 추진 개요를 제시하고, 광역자활

센터는 이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고, 최종 사업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무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표 IV-8〉 공모 이관형 사업의 적절성 평가

구분	주요 내용
광역	- 현장 친화적인 광역자활센터 자세 변화 필요(심사-)지원) (A-1)
교육	- 이관 사무방식의 공식화 필요. 그해 중앙자활자금 편성 때 광역센터에 설명회를 통해 예산 및 사업을 전달하는데, 이관사무를 집행하는 광역센터에 대해서는 단순 이관 사업 설명회가 아닌, 전담자 연수 교육으로 진행 요함. (B-2)
광역역량	- 이관사업 수행 주체인 광역센터의 권한과 책임구조 개선 (B-2) - 광역자활센터의 기업 지원 역량과 경영지원 전문가 집단에 대한 발굴 및 관리역량이 충분한가? 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역량 점검과 인력 운영 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B-3)
광역자활센터 환경	-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광역자활센터에 따라서 심사기준의 해석과 적용 방법,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 등이 달라서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교육 및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B-4)
사업구조	- 개발원이 단위 사업별 추진 개요를 설정하면 이관받은 광역은 해당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고-접수-심사위원회-지원 대상 선정하여 개발원에 결과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무구조 개편 필요 (B-2)
이관 방향 및 전략	- 자활기업 아웃리치(Outreach)서비스를 도입하여 광역센터에서 2025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자활기업 사전진단 컨설팅> 후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B-3) - 중앙에서 총괄하는 방식보다는 각 시도 광역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기금 집행 절차 및 인력 등) (C-2) - 광역별 특화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각 시도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특정 예산을 확보하고 특화사업 등 별도의 사업발굴을 각 시도별로 추진하도록 독려 필요 (C-2) - 중앙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지방에서 자활사업에 대하여 적극성이 부족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중앙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지방이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적절 (D-1)
한계	- 공모제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으나 적절한 배분 방식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자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은 좀 더 세밀하게 받을 필요가 있음 (C-2)
이관 여건 및 조건	- 중앙 광역 단위의 공모 이관형 사업의 경우 지침이 적절하게 구체화하기 어려워 사안별, 지역별 지원 방안에 대한 편차가 존재함.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함. 수동의 구체화, 지원사업, 목적, 내용, 품목 등 구체화 필요함 (C-2) -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각 시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 부재한 상황으로 적절한 사례공유를 통한 통일화 작업도 병행되어 가야 함 (C-2) -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변동에 따라 심사의 기준이 변화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일

	<p>정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C-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별로 지원사업별 심사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여 추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특히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지원 결정 여부에 따라 민원 발생 가능성 높으며 자금 사용에 대한 점검도 쉽지 않은 어려움 발생할 수가 있음 (C-2) - 중앙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D-1)
--	--

4) 향후 중앙자활자금의 역할 및 세부 사업에 관한 개선 사항

(1) 중앙자활자금을 통한 현행 지원사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중앙자활자금 지원사업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부문에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첫째, 지원하는 초기에 집중하며, 지원 시 자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자활기업이 사업 초기에서 안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보다는 좀 더 세분화하여 자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의 정착률 도울 것이 제안되었다. 더 나아가 단계별 상황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함께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중장기 지원사업 체계 구축 또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현재 인프라 구축 사업 신청 시, 광역자활센터는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특히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는 매칭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셋째, 자활기업 사업개발비의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현행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로는 충분한 사업개발이 어려운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업개발비의 경우 노후 시설·장비보강사업과 사업개발지원사업이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자립형과 사회형으로 구분하고 자립형은 노후 장비보

강 사업 중심으로 일회성 지원, 사회형은 신규 사업개발, 신규매출 발생 지원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사업개발비 및 규모화 협업 사업의 경우, 사업지원 중간에 경영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규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의 요구는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중앙자활자금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시, 좀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9〉 중앙자활자금 현행 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시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 집중 지원이 효과적 (A-1) - 창업 초기와 성장단계, 안정화 단계마다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D-2) - 1년 차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므로 3년 연속사업 지원 시 시기마다 평가 기준을 단계에 맞게 적용하는 것 필요 (C-2) - 자활기업 지원의 경우 중앙자활자금지원 사후관리보다는 지원 이전 지원 방안에 대한보다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 (C-2) - 중장기(5~7년) 지속 지원체계 마련. 성과 기반 추가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의 안정적 운영지원이 필요함. 그래서 사업 종료 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C-2)
매칭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구축 사업: 대도시 및 수도권 지자체 매칭이 거의 불가능.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방향 변화 모색 필요 (A-2)
지원 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사업개발비 5년 이내 3회(회당 5천만 원)를 기업당 최대 금액을 설정하고 기간 제한 설정을 삭제 (B-2) - 사업개발비의 경우 노후 시설·장비보강사업과 사업개발지원사업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자립형과 사회형으로 구분하고 자립형은 노후 장비보강사업 중심으로 일회성 지원, 사회형은 신규 사업개발, 신규매출 발생 지원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C-2) - 사업개발비, 규모화 협업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2회차/3회차의 경우 경영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컨설팅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별도 사후 관리하는 그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B-4) - 중앙자활자금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 특히 자활기업지원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성과가 좋은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악화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C-2)

(2) 추진 사업의 특성에 따른 중장기 지원사업의 필요성 평가 및 제안

중장기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제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향후 중장기사업 지원하고자 할 경우, 첫째, 창업자금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앞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언급된 부분이다. 이마 이는 그만큼 현장에서 사업지원 시기 및 기간에 대한 확대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더불어 중장기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사후관리 제도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둘째, 규모화 및 협업화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즉, 컨소시엄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간 규모화 및 협업화 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되었으며, 규모화 및 협업화 지원사업은 단기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해야만 그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V-10〉 추진 사업 특성별 중장기 지원사업의 필요성 평가 및 제안

구분	주요 내용
중장기 지원 방향	- 자활기업 창업자금 중장기 지원으로 개편(현행 18개월까지를 최대 3년까지 등으로 개편, 장기지원의 경우 예산 등을 통해 차등 기준 적용) (B-2) -기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자금의 지원 역시 이에 맞게 변경할 필요 있음. 다만 이처럼 자금지원이 복잡해지며 장기화하고 규모도 커질수록 관리 과정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음 (D-1)
규모화 및 협업화	- 규모화 및 협업화사업 중장기 지원으로 개편: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규모화 및 협업화사업은 중장기과제로 운영할 필요.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보니 규모화, 협업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교육, 부가 사업개발 분야보다는 단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설·장비에 집중될 우려 (B-2)

(3) 고가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제안

고가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고가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 보인다. 결국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가장비 구매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고가장비 구매에 관하여 창업 초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지원 기준 및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이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 및 사업 종료 후의 사용 및 유지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고가장비 구매 지원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제안되었다. 특히 관련 지표로서는 매출액, 성과지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많은 자활기업이 차량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중앙자활자금을 통한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현재 이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우니 이에 대한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이 경우 사업장환경개선비 또는 사업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의 자활기업 니즈가 있음에 따라 전국단위 조사를 통해 일괄 구입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기도 하였다.

셋째, 건물 및 생산설비 관련해서, 고가장비의 범주 안에 토지, 건물, 생산설비, 대형차량 등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자금 규모 역시 확대하여 사업비를 확대하고 이를 융자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표 IV-11〉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필요성 및 관련 지원 기준 제안

구분	주요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장비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과 수익률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기회 마련이 중요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음 (C-1) - 자활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가장비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D-2)
지원 시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 또는 성장단계의 자활기업 중 고부가가치 사업 및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되, 사업의 성장 가능성, 시장경쟁력, 장비 도입 후 매출

지원 대상	증가 및 고용 창출 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장비 활용계획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정함 (D-2)
지원 기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필요성, 사후 활용계획 및 유지 관리 기준 제시 (A-1) - 고가장비와 같은 자산은 단기효과보다 장기적 운영성고가 중요하므로, 증장기성고를 평가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 - 자활기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지역사회 기여가 중요한 목표이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함. -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은 매출액, 성장률, 취약계층 고용률, 자산 활용도 및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및 판로 개척 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D-2) - 고가장비와 시설 지원은 더 분명한 목표 등이 제시되고,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규모화를 이루어나가는 단계적 계획과 절차 등이 동반 되어 질 필요가 있음. 장비와 시설 등의 지원은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자활기업 규모화를 위한 실천 사업들이 동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C-1)
차량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센터가 지역특화사업 추진 시 예외 조항을 두어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센터나 기업이 사업장환경개선 사업이나 사업개발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요청 (B-3) - 각 광역별 차량 구입을 종류별로 취합 후 개발원 승부 -> 개발원에서 취합 후 일괄 입찰 진행하고 차량의 취득등록세, 탁송료 등 기타 비용을 선정기관에서 납부하여 차량을 내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보임 (B-3)
건물 및 생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물(창고, 작업장), 생산설비, 대형차량 등 고가의 기반 시설 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지원 규모는 최대 10억 원 한도까지 사업비 지원 또는 그 이상 금액에 대한 융자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은 광역 단위 자활사업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B-4)

(4)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성과 평가 항목

자산취득지원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해 의견 조사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투입 관련 지표로 집행률, 장비 활용도, 전문인력 유지율, 신규 일자리 수, 취약계층 고용률, 자산 활용도 지표가 제시되었다. 산출자료로는 지원 건수, 매출액 증대, 예산 절감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장기적인 성과지표로 시장 확대 지표가 제시되었다.

〈표 IV-12〉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성과 평가 항목

구분	주요 내용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률, 장비 활용도, 매출액 증대, 신규 일자리 수 (A-1) - 매출액 (A-3) - 단순 집행률보다는 신청하여 이미 지원된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예산 절감을 하고 반납했을 시에 대한 가점 평가도 필요함(단순 미집행이 아니라 예산 절감 목적 시) (B-3) - 집행률, 용자지원의 경우 상환율, 장비, 시설 등의 활용률, 지원 건수 등 (B-4) - 전문인력 지원의 목표로 전문인력 유지율, 자활기업 매출 변화를 명시하였는데 전문인력의 종류에 따라 목표가 정해져야 함 (D-1) - 고가장비 지원 확대 및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하고, 매출액 성장률, 취약계층 고용률, 자산 활용도, 시장 확대 성과 등 다각적 성과 평가 도입 (D-2)

(5)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2차 성과 평가 기준의 필요성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2차 성과 평가 기준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FGI 조사 결과,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자 수 그리고 지원 전후 매출 증감률 및 일자리 증감률 지표가 제시되었다. 추가로 종사자 만족도 지표도 함께 제시되었다.

〈표 IV-13〉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2차 성과 평가 기준의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자 수 (A-3) - 지원 전후의 매출 증감률, 일자리 증감률, 취약계층 고용 증감률, 종사자 만족도 (B-4)

5) 중앙자활자금의 운용에 관한 기타 의견

중앙자활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사하였고, 분석한 내용은 전술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어 중복되지 않은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 지역별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한 자금이 중앙자활기금으로

유입되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금이 유입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중앙자활자금 조성에 관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둘째, 각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애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든 사업이 실적이 낮다고 해서 정리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목적상 꼭 필요한 사업은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현행 지원 내용 중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것은 사업개발비 지원 기간의 변경이 요구된다. 또한 광역 단위의 설비투자 사업 신설,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신설, 단순 임가공 사회 서비스 사업지원에 대한 제한 등이 요구되었다.

넷째, 경영관리지원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연초 광역별 예산 및 사업량 배분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이후 현업화(사업화) 단계에서 후속 컨설팅을 시행하여 필요한 영역을 경영관리지원단을 통해 완성도를 갖추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앙자활자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요구가 많았다. 이는 본연구의 목적과도 맞는 부분으로서 실제 현장 및 학계에서도 자금 활용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계획-실행-평가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IV-14〉 중앙자활자금 운용 관련 기타 의견

구분	주요 내용
지역별 기금 배분 비율	- 중앙자활자금 구성에 기여 정도에 따른 센터가 차별적 지원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A-2)
비효과적 사업지원 중단	-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자활기업 공동 공간 조성은 1건도 추진하지 못한 점은 사업설계에 한계를 보여줌. 자활기업도 활용하도록 사업설계 필요 (B-1)
지원 내용	- 사업개발비의 5년간 3회로 설정은 기업의 시의적절한 사업활용도 떨어짐 (B-1) - 광역 단위 등의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한 설비투자 등 기획 필요 (B-1) - 신규사업 1억 원 지원 조건 신설 필요 (B-1) - 단순 임가공 등 사회 서비스형 사업 신청 우려 (B-2)
사업지원 구조 변화	- 규모화 지원은 개발원 혹은 광역의 개입 없이 사업확산 어려움. 사업 취지에 맞게 광역자활센터가 반드시 추진체계에 들어가 있어야 함 (B-1)

<p>지원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지원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연초 광역별 예산 및 사업량 배분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자활기업의 경우 기획력 부족으로 사전컨설팅 필요 (B-2)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이후 현업과(사업화) 단계에서 후속 컨설팅 필요한 영역을 경영관리지원단을 통해 완성도를 갖추도록 할 수 있음 (B-2) - 임대보증금 용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특성상 손실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자금이 오랜 기간 묶인다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함. 그러므로 향후 자금의 증장기적인 적정규모를 예측하고 이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 (D-1)
<p>정산 및 지출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사업과 공모사업비, 광역 위탁운영비 등 광역센터로 입금되는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첨부해야 할 정산 서류의 제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며, 센터 예산전용 기준 완화 필요함 (B-3)
<p>효과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성을 논하며, 2025년 자활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축소되었음. 최근 3년간 지원사업 결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어떻게 하면 지원사업을 지속해 제공할 것인가 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확대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평가해야 함 (C-1) - 중앙자활 자금을 통한 자활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지속해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B-4) - 효과성 분석의 가장 첫 번째는 중앙에서 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들인가에 대한 평가 필요 (D-1)

4. 종합 결론 및 제언

중앙자활자금(이하 자활자금)은 공적 목적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규정되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활기업의 창업자금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펀드이다. 하지만 자활자금이 차츰 축적됨에 따라 초기 목적하였던 운용 목표에 걸맞은 지원사업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같은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본 연구는 중앙자활자금의 실질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하여 세부 사업별 성과를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해당 분석을 통해 자활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별 자금지원 배분의 적절성 진단을 시도하고 자문 등을 토대로 향후 중앙자활자금의 개선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는 중단 및 기업 간 비교분석을 통해 중앙자활자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인력, 시설환경 개선 지원이 자활기업의 경제적, 고용, 사회적 성과를 높여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중앙자활자금 지원 사업 수혜 여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긍정적인 사업 효과를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혜 여부에 따라 각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역량강화지원사업은 교육 만족도와 활용도, 자활기업 창업, 자활기업 법인화, 기업 문화,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자활기업의 경제적, 고용, 사회적 성과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의 경제적 측면이 과연 실재함을 볼 수 있었다.

시설환경지원사업 역시 역량강화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중앙자활자금을 통한 역량강화지원사업은 매출액 향상, 취약계층 고용, 총 고용인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창업지원에서도 부분 발견된다. 가령, 창업 운영자금 수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출총이익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영업 순이익에는 유의하지 않아, 사업비 지원이 창업지원 부문에 있어서 부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점은, 비단 재정 지원이 자활기업의 양적 성장으로 직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지원 여부에 따른 매출총이익에서는 수혜 여부에 따라 일면 차이가 보인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의 매출총이익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수혜 기업의 이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상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업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다른 사업의 영향을 배제하고 도출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지역자활센터 혹은 자활기업이 상당 부분 존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존재한다. 더불어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기존에 목표하였던 자금의 효과성 분석이 다소 제약되게 수행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역량강화지원 사업 내 사례관리 지원사업, 복지·자활도우미 역량향상 교육사업은 자료의 한계로 양적 차원에서의 성과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양적 분석과 더불어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세부 사업별 효과를 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성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지원을 통한 자금 운용이 경제적, 고용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긍정적 효과를 가짐을 발견하였으며, 주어진 여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예컨대 양적 차원에서, 전년도 지원 실적과 차년도 운영계획을 담은 중앙자활자금 운영계획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실

시하고 이를 자활기업 실태조사 원자료와 결합함으로써 종단 및 기업 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적 차원에서, 유사 펀드인 녹색자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선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적 펀드 측면에서 중앙자활자금의 향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중앙자활자금 위탁 운영을 담당한 광역센터 및 사업비 지원 수혜 지역자활센터 실무진, 자활 유관기관 및 재정 부문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함으로써 현장과 학계 차원에서 현행 중앙자활자금의 실질 효과성 진단과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중앙자활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과 후속 연구에 관해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중앙자활기금의 성격과 목적,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중앙자활기금의 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자활기금의 성격과 정체성을 자활사업의 발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지, 혹은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좀 더 협의적으로 정의할지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내용의 향방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별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측정 방법을 함께 제안할 필요가 있다. 중앙자활자금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후, 성과 측정의 세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며, 그에 관한 근거 마련의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한 개선안으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자문회의와, 공적 기금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금평가의 성격을 빌려, 자활사업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 자문위원회를 열어 사업지원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자문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금을 각 자활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만 운용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수익 창출 구조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은 기금 여유자금은 운용하고 이를 자산운용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기금의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물론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를 토대로 하여 공적 차원에서 특정한 목적 아래 자금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고자 운용되어 자금과 일면 다른 성격을 갖기에, 이를 현행 자활자금의 운용 개선안으로 접목하는 것은 다소 비약된 해석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펀드 모두 공적 목적을 지닌 재정이라는 성격 아래 축산발전기금과 중앙자활자금은 어느 정도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 그렇기에 자금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관 내 위원회와 더불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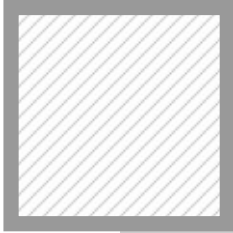
부의 성과평가와 위험관리 진단을 병행한다면, 전보다 내실 있는 자금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아래, 비교적 광의의 측면에서 자금의 효과성을 탐색하였고 양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경향을 보인다. 통계적으로 자금 운용에 관한 여러 요인의 실질 효과를 살피는 작업 역시 중요하지만,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특성을 살피는 작업도 자금의 질적 성장에 모종의 함의를 건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자활자금은 광역자활센터의 위탁 구조로 추진됨으로써, 비단 거시적인 지표가 세부 사업의 효과를 완전히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일면 존재한다. 그렇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금 수혜 기업이나 사례관리(사), 해당 기업에 고용된 직원 등에 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지표도 함께 봄으로써, 자금지원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양적 연구와 더불어 현행 중앙자활자금 발전에 또 다른 시사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다.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24. “2024년도 기금평가 결과.” 2024년 5월 28일 보도별첨자료.
- 김용수, 노희천, 이명환. 202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31(3): 4-24.
- 김재진, 홍범교, 김경휘, 황보람. 2011.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혜련·여지영, 2014.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4-05.
- 김혜련·여지영·정애숙, 2013.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2.
- 배화숙. 2019. 근로장려금제도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문논총 50: 127-154.
- 보건복지부. 2013. 2013 종합자활지원계획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_____.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_____. 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산림청. 2024. “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 발표“, 2024년 9월 10일.
- 아세안 익스프레스 보도자료. 2023. ”북권이 만든 43억의 녹색자금... 4년간 범 위반 기관들에 무분별하게 지급.“ 2023년 10월 13일.
- 이산해·유일한·강석훈. 2022.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법성 검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조상미. 2021.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최병근. 2020.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770.

- 최조순·최성은. 2023. 지방자치단체 기금실태 분석 - 경기도 자활기금을 중심으로 -. GRI 연구논총 25(3): 139-158.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HP FUND TODAY-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동향 vol. 1.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3.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업무매뉴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0. 2021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 계획(안) (내부자료).
- _____. 2021. 2022년도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 계획(안) (내부자료).
- _____. 2022. 2023년도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 계획(안) (내부자료).
- _____. 2023. 2024년도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 계획(안) (내부자료).
- _____. 2024. 2023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결산 보고 (내부자료).
- _____. 2024. 중앙자활자금 재무분석 보고서 (내부자료).



부 록

1. 중앙자활자금 추진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설문지

[부록] 중앙자활자금 추진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설문지

중앙자활자금 추진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설문지

1. 현행 중앙자활자금의 추진 관련,

- 1) ①창업지원, ②활성화 지원, ③지역 균형 발전 자금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는 자금 집행 구조의 타당성
- 2) 각 부문(창업지원/활성화 지원/지역 균형 발전 자금) 내 예산 배분의 적절성
- 3) 세부 사업 중 신설 가능성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

2. 중앙자활자금 지원 절차 관련, 현행 지원 방식인 공모제에 관한 평가

- 1) 공모제 진행의 한계와 그에 대한 개선 사항
- 2) 형평성 확보를 위한 비공모 방식 도입의 필요성
- 3) 중앙 광역 단위로 진행되는 공모 이관형 사업의 적절성

3. 향후 중앙자활자금의 역할 및 세부 사업에 관한 개선 사항

- 1) 중앙자활자금을 통한 현행 지원사업(최대 5년 3회 지원 또는 일회성 지원)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사후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등)
- 2) 추진 사업의 특성에 따른 중장기 지원사업의 필요성 평가 및 제안
- 3) 고가 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 형태의 지원사업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제안
- 4)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성과 평가 항목 - 집행률 등
- 5) 자산취득지원 형태의 지원사업 2차 성과 평가 기준의 필요성 -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률 등

4. 중앙자활자금의 운용에 관한 기타 의견